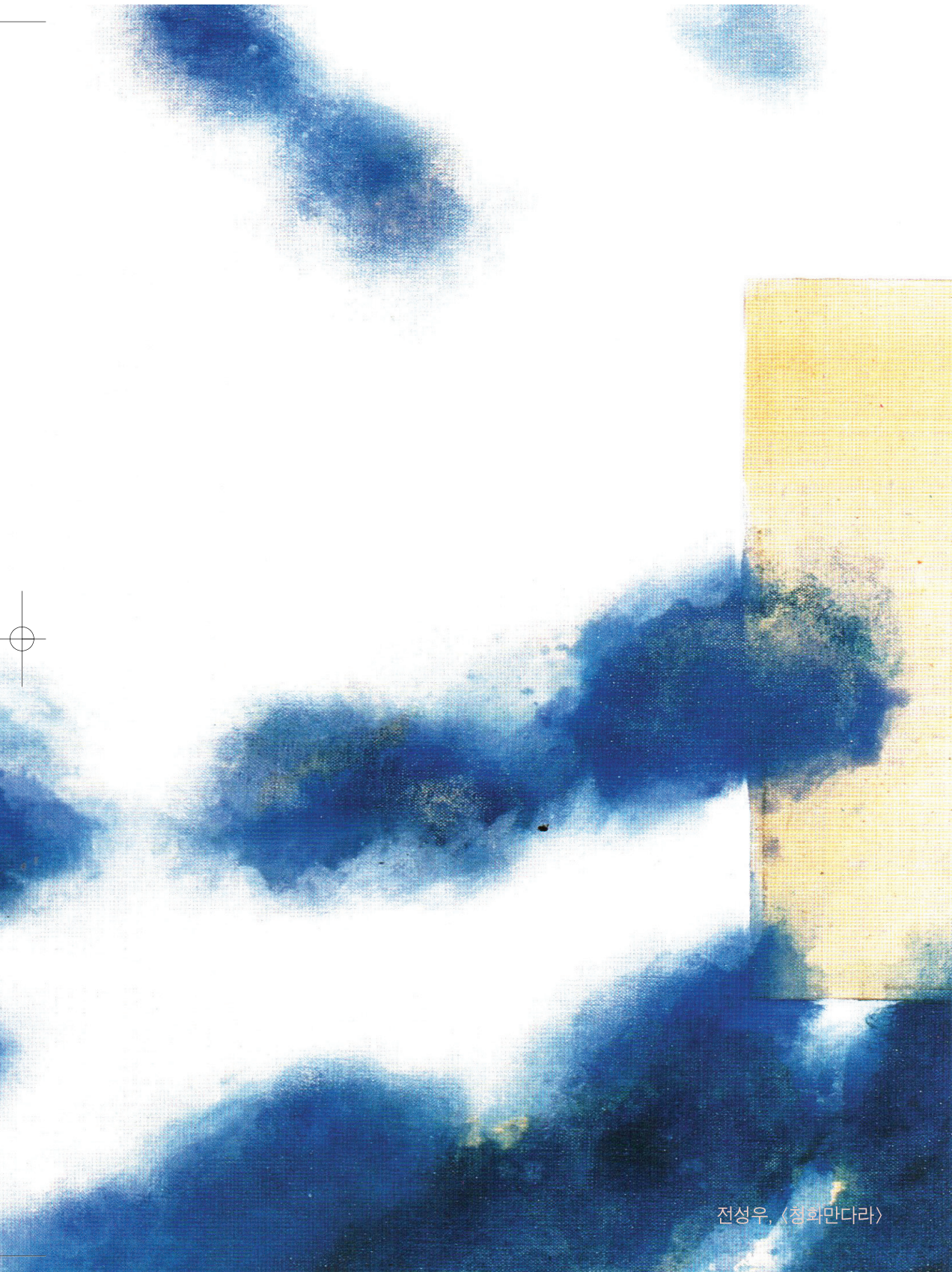


성북동

잊혀져 가는 우리 동네
옛이야기를 찾아서 2

004 들어가는 말 010 유치웅 020 변종하 032 송영수 046 윤중식
056 서세옥 068 전성우 080 신영상 090 송영방 100 임송희 112 김은영 122 부록



전성우, 〈침화만다라〉

Ⅰ 들어가는 말 Ⅰ

예로부터 경관이 수려한 명승지에는 자연을 아끼고 풍류를 즐길 줄 아는 문인 묵객들이 찾아오곤 하였습니다. 서울성곽 북쪽으로 마을을 이룬 성북동은 서울 시내를 벗어나 바로 자연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조선시대부터 별장지대로 알려졌던 이곳의 아름답고 조용한 산자락에는 많은 예술인들이 기거하며 작품 활동을 하였습니다. 의친왕의 별서정원이었던 성락원(명승 제35호)과 상인 이종석(李鍾奭)의 별장(서울민속자료 제10호)¹⁾은 지금도 그 시절의 풍류와 자연이 어울린 한옥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잊혀져 가는 우리동네 옛이야기를 찾아서-성북동』은 문화와 역사가 살아있는 성북동의 모습을 이곳에 살아온 사람들, 특히 문화예술인들의 기억을 통해 만나보는 책입니다.

성북동 예술인들은 수려한 자연 환경 속에서 수석과 석물, 소박한 조선시대 목가구 따위를 모아 집을 꾸미고 안분지족(安分知足)하며 자신만의 예술세계를 만들어 갔습니다. 성북동에 살며 작품 활동을 한 이야기, 서로 교류한 일화들을 통해 멀게 느껴졌던 예술인의 삶을 조금 더 가까이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2009년에 발간된 1권에서는 역사 속에 남은 성북동의 문화예술인들을 담았습니다. 조선시대 천재 화가 오원 장승업*, 시인이자 승려, 독립운동가였던 만해 한용운*, 화가이자 미술사가, 교육자로 큰 족적을 남긴 근원 김용준*, 근원의 집(노시산방)에 이어 살며 ‘수향산방’이라 이름 붙이고 작품 활동을 한 우리나라 근대회화의 선구자 수화 김환기*, 동양화가 운보 김기창*과 여류 화가 우향 박래현* 부부는 근대 화단에 이름을 남긴 예술인들입니다.

문단에는 〈성북동 비둘기〉를 쓴 시인 이산 김광섭*, 순수문예운동을 이끈 소설가 상허 이태준*, 구보 박태원*, 수필가이자 수화 김환기의 부인인 김향안*, 청록파 시인으로 현대시의 정립에 큰 영향을 끼친 조지훈*이 있습니다. 그밖에 일제강점기 문화재를 지키고, 우리나라 최초의 사립박물관을 건립한 간송 전형필*과 국립중앙박물관의 발전을 이끈 박물관인 혜곡 최순우*와 같이 당시 문화예술인들과 교류하며 큰 발자취를 남긴 인물들을 소개하였습니다.

이번 책에서는 작고한 예술인부터 지금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들이 성북동과 인연을 맺은 이야기를 통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성북동 예술의 흐름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2권에서 만나볼 예술인은 아직 그 자취를 찾아 볼 수 있거나, 오래 거주하며 활동하고 있는 동양화가 서세옥, 신영상, 송영방, 임송희, 서양화가 윤중식, 변종하, 전성우, 조각가 송영수, 서예가 유치웅, 매듭장 김은영입니다.

한편, 지난 책과 이번 책에서 만나볼 예술인들의 관계와 교류를 살펴보는 것도 책을 읽는 재미가 될 것입니다. 오원 장승업의 그림을 보고 서양화에서 동양화로 전공을 바꾼 근원 김용준은 산정 서세옥으로 이어지는 한국화단의 스승입니다. 우송 전성우는 간송 전형필의 큰 아들로 부인은 시인 김광균*의 딸인 송리 김은영입니다. 다른 예술인들 또한 해방 후 문화예술계를 이끈 선후배이자 동료로 함께 활동하며 교류를 하였습니다.

성북동을 고향처럼 여기며 자신들의 예술세계를 펼쳐 보이는 이 지역 예술인들은 뜻 깊은 활동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1978년에 산정 서세옥의 발기로 결성된 ‘성북장학회’²⁾는 현재까지 30여 년간 작품을 모아 어려운 학생들을 돕고 있습니다.

이밖에 성북동을 거쳐간 여러 예술인들에는 소설가 방인근*, 염상섭*, 전광용*, 작곡가 윤이상*, 채동선*, 시인 김종삼*, 허영자*, 조각가 권진규*, 화가 권옥연*, 이규선* 등이 있습니다.

소나무가 우거지고 큰 바위 위로 폭포처럼 물이 떨어지던 몇 십 년 전 성북동의 모습은 이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 모습을 찾고 있는 서울성곽과 성북동 문화유산을 찾아오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선잠단지, 성락원, 심우장 같은 문화유산과 우리나라 최초의 구립미술관인 성북구립미술관³⁾, 시민의 힘으로 지켜낸 첫 시민문화유산 ‘최순우 옛집’, 문화예술인들의 아틀리에와 흔적이 살아 있는 곳. 전통과 현재가 어울린 성북동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각주

- 1) 성북동 이종석별장(城北洞 李鍾奭別莊) : 조선 말기에 마포에서 전갈장사로 부자가 된 이종상이 1900년경에 지은 별장이라고 전한다. 1960년대 소유자의 이름을 따서 '이재준가'로 알려졌으나 문화재청에는 '이종석별장'으로 등록되어 있다. 현재 덕수교회 목사관으로 사용하고 있다.
- 2) 성북동에 살고 있는 산정 서세옥 화백이 동네를 산책하던 중 어린 아이들이 학교도 가지 못하고 길거리에 나와 있는 것을 보았다. 아이들은 제대로 입지도 못하고 먹을거리도 부족해 보였다. 산정은 당시 구청장에게 건의를 하여 '성북장학회'를 만들고 예술인들의 작품을 모아 전시를 하고 작품 판매액을 장학기금으로 조성하였다. 서세옥, 이규호, 최만린이 회장으로 활동하였고, 1978년부터 지금까지 12회 전시를 열어 5억 원이 넘는 기금을 마련하였다. 출품 작가로 서세옥, 송영방, 신영상, 이규선, 임송희(이상 동양화), 권옥연, 윤중식, 이규호, 조문자(이상 서양화), 최만린(조각), 김충현(서예) 등이 있다.
- 3) 성북구립미술관(성북동 246번지)은 성북구청이 설립(명예관장: 서세옥)하였으며, 2009년 준공 기념전시와 2010년 개관전시를 열었다.

일러두기

인물명*은 부록 '본문 수록 인물 정보' 참고

성북동, 어제의 예술가

유치웅 변종하 송영수





변중하, 〈서정적 풍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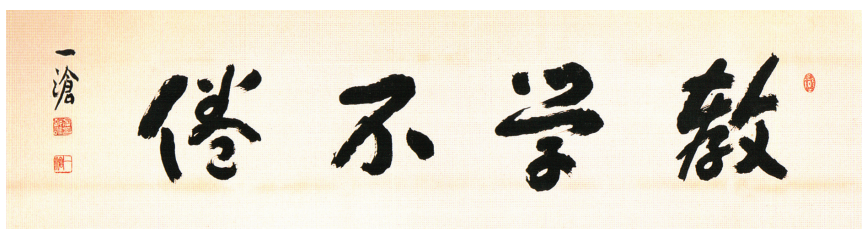
초서(草書)에 담긴 고귀한 선비정신

일창 유치웅 一滄 兪致雄

1901~1998

묵향 가득한 한 점, 한 획의 글자에는 붓을 잡은 이의 정신이 배어 있다. 일창 유치웅은 1901년 충청남도 부여에서 우당 유창환*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당대 독립운동가이자 명필가 중 한 명이었던 아버지 우당의 정신과 재능은 일창에게 이어졌다. 글을 쓸 때마다 일창에게 먹을 갈고, 화선지를 잡게 한 아버지 곁에서 13년간 묵묵히 먹을 갈며 서법을 터득하고 안목을 키웠다.

일창에게 서예는 선비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이었다. 자신을 드러내기 싫어하였던 선생은 평생에 개인 전시회 한 번 가진 일이 없었다. ‘덕행이 근본이요, 문예는 꼬트머리다.’라는 글귀를 가르침의 법도로 삼아 늘 인격과 학문을 겸비한 사람됨을 강조하였다. 창해일숙(滄海一粟)이라는 글귀에서 아호(雅號)를 지었듯이 스스로를 푸른 바다의 한알 줍쌀알이라고 낮추며 아랫사람에게도 언제나 예로써 대했다.¹⁾ “초서는 둥글둥글, 한군데도 모가 나선 안 되요.”라는 일창의 말은 겸양을 미덕으로 하는 그 삶과 닮아 있다.



교학불권(敎學不倦)²⁾

부끄럼 없는 선비 정신

일창은 1918년 동갑인 이회숙과 결혼하여 1923년 서울로 이사하였다. 1945년부터 3년간 동성중학교 교사와 보인상업중학교 교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후학들에게 한글·역사·공민 등을 두루 가르쳤다. 해방이후 학문에 정진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 될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좌우익의 사상 대립이 학교 안까지 스며들었다. 선생은 회초리로 학생들을 때려가며 “이놈들아, 너희들이 공부나 하지 무슨 정치냐”라고 꾸짖었다. 일창의 가르침으로 어지러운 사회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공부를 마친 학생들이 나중에 선생을 찾아와 감사드린 일도 있었다.

1948년 위당 정인보*의 권유로 초대 감찰위원회 감찰관을 지내는 동안 일제의 탄압에도 공문 이외에는 일본 연호인 황기(皇紀)를 쓰지 않았다. 부친 우당의 비문(碑文)에는 단기(檀紀)를 사용하여 서적을 몰수당하고 요시찰인물이 된 적도 있었다.³⁾ 일창은 감찰관직을 맡았을 때 부정부패에 엄격하였고, 공직에 몸담는 동안에는 관의 물품 어느 하나 빌려 쓰지 않았다. 20년 동안 두 차례에 걸쳐 명지대학교 이사장을 지내면서도 대중교통을 이용하였고, 비리가 난무하는 무리에 섞이는 것이 싫어 많은 자리를 고사하였다.

부친 우당이 부흥학교를 설립하고 민족의 힘을 양성하였듯 일창은 1949년에 재단법인 부운(富雲)장학회를 설립하여 후학 양성의 뜻을 이어갔다. 또, 조상을 섬기는 뜻이 남달리 지극하여 50년간 기계유씨(杞溪俞氏) 문장(門長)⁴⁾을 지냈다. 선조들의 글을 모은 『경모첩(景慕帖)』(1956)과, 고문헌을 일일이 고증하여 오만 여 장에 달하는 『기계문헌(杞溪文獻)』(1962, 전16권)을 발간하였다.



오세창, 〈일쾌헌(一快軒)〉, 1946, 75×17cm

편지가 많이 오던 성북동 210-46번지

1972년 부인과 사별한 이래 일창은 성북동에서 여생을 보냈다. 1998년 작고 할 때까지 거주한 집은 서울성곽과 맞닿아 있다. 넓고 좋은 집은 아니었으나 청렴한 공직 생활 20년 동안 돈을 모아 마련한 집이었다. 마당 한 편의 작은 정원에는 직접 장미와 국화꽃을 심고 가꾸었다.

일창의 집은 성북동에서 가장 편지가 많이 오던 집이다. 그만큼 사회 여러 분야의 명사들과 교류가 많았다. 성재 김태석*, 위창 오세창*, 위당 정인보, 백범 김구*, 윤석 장면*, 해곡 최순우* 뿐만 아니라 중국의 명필가 우우임(于右任)*, 화가 제백석(齊白石)* 등 많은 명가들과 교분을 나누었다.

사랑방에는 위당 정인보 선생이 선물한 매화가 있었다. 추위가 가시지 않은 이른 봄 매화꽃이 필 때면 사랑방 가득 매화 향기가 가득하였다. 독립운동가이자 학자인 위창 오세창은 일창의 재호(齋號)⁵⁾를 붙여주었다. 일창이 해방이 되어 기쁜 마음에 위창 선생을 찾아가니, 바깥 분위기가 어떨가를 물었다. “일쾌이(一快已)올씨다”(일본 세력이 한순간에 빠져 나갔다)고 하니, 대답에 흡족해하며 이내 「일쾌헌(一快軒)」이란 글씨를 써주었다.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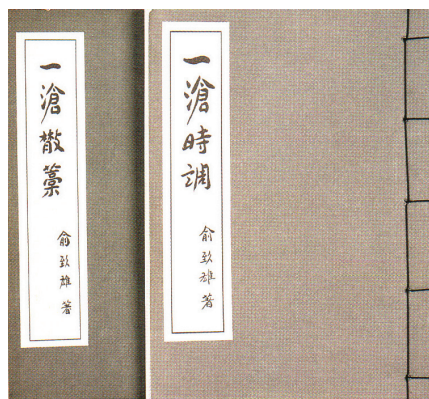
성북동 자택 사랑방에서

좁고 불편한 성북동 집을 떠나 일본식 건물인 적산가옥으로 옮겨 편히 사시라는 주변 권유에 “일본 놈 살던 집에 어떻게 살 수 있겠냐”며 공기 좋은 성북동을 떠나지 않았다. 서울성곽은 일창의 산책로였다. 새벽 서너시면 일어나 매일 성곽을 오르내리며 운동하는 일을 거르지 않았다. 가끔 산책삼아 경치 좋은 성북동 길을 넘어 혜화동에서 친구를 만나 점심을 먹기도 하였다. 친구를 만날 때면 밥값과 차값은 항상 선생이 내곤 했다. 다른 사람에게 신세를 지는 것을 꺼려 호주머니에 돈이 없을 때는 외출하지 않을 정도였다.

일창은 중국과 대만을 자주 왕래하여 건문을 넓혔고, 그곳의 명필가들은 일창의 붓놀림에 감탄하며 교류를 나누었다. 성북동 자택에는 제백석의 그림과, 일창의 글씨를 받은 우우임이 답례로 쓴 대련 『심적화평기 수성천지공(心積和平氣 手成天地功)』⁷⁾이 걸려 있었다. 성북동 좁은 골목 작은 집에 숨어사는 끝은 선비를 세상이 알아보고 인정한 것이다.

일창은 자신의 글씨가 도움이 되는 일이면 흔쾌히 작품을 내놓았다. 성북구에서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전시를 열었을 때 글씨를 써 주었고, 작품을 팔고 남은 돈을 일절 받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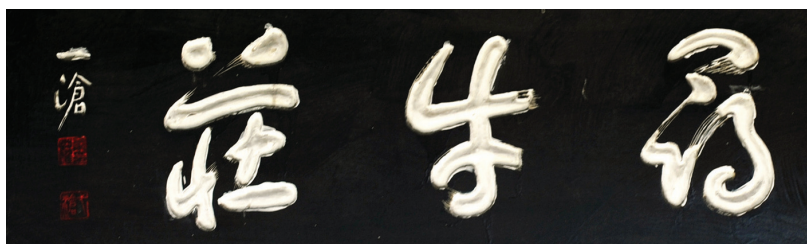
일창의 글과 글씨는 선생을 존경하며 따르던 이들의 노력으로 책으로 묶였다. 팔십 수회연을 기념하여 발간한 『일창시조(一滄時調)』, 『일창산고(一滄散藁)』 등에는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전한 시문서화가 담겨있다. 『일창시조』는 자필 원고를 그대로 영인한 것이다. 자신의 글과 이름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을 꺼려하는 것을 안 지인들이 교정을 봐드리겠다는 피를 내서 받은 원고를 모아 냈기 때문이다.



『일창시조(一滄時調)』와 『일창산고(一滄散藁)』

1998년, 일창은 98세로 세상을 떠났다. 끝까지 붓을 놓지 않아 많은 글을 남겼으나 대부분의 자료들이 흩어져 있었다. 이에 2008년 둘째아들 유진쾌와 제자 석도 유형재가 유묵전(예술의 전당 서예전시실)을 개최하였다. 일창유묵전은 평생 자신을 내세움 없이 살아 유명하지도 않았고, 허명도 없던 일창을 기리는 전시였다.

일창이 살던 성북동 집 근처의 ‘심우장’ 에는 일창이 쓴 편액이 걸려있다. ‘심우장’ 글씨에서 고귀한 선비로서 겸양을 미덕으로 청렴한 삶을 살고자 했던 선생의 뜻이 드러나는 듯하다.



만해 한용운의 집 '심우장' 편액

연보

1901년 충남 부여 출생

경성공학전문학교 토목과 졸업

경력

보인중학교 교원, 동성중학교 교사, 감찰위원회 비서실장(이사관) · 감찰관, 사정위원회
위원(1급), 성균관 부관장, 학교법인 명지학원(명지대학교) 이사장, 국전 서예부 초대
작가 · 심사위원

수상

노후생활 찬하 월남장(1986), 우관상(又觀賞) 수상(1996)

전시(유작전)

예술의 전당(2000), 예술의 전당 서예박물관(2008)

각주

- 1) 진태하, 「마지막 선비 일창 대선생(大先生)」, 『일창 유치웅선생유묵전』, 이화문화출판사, 2008, 221쪽.
- 2) 교학불권(敎學不倦): 가르침과 배움에 게으름이 없다.
- 3) 『일창 유치웅선생유묵전』, 이화문화출판사, 2008, 218쪽.
- 4) 문장(門長): 문중에서 선출되며 종손과 함께 문중을 이끌어 나가는 일을 한다.
- 5) 김은호, 『일창 유치웅선생유묵전』, 이화문화출판사, 2008, 218쪽.
- 6) ‘일쾌이(一快巳)’는 일본인이 밑물처럼 일시에 빠져나간 모습을 말한다. 이는 일본인의 침략이 완전하게 끝을 맺는 것이 아니라 썰물처럼 언젠가 또 밀려들어올 것임을 암시하는 말이었다. 일창의 대답을 들은 위창은 “그렇지, 잘 봤어. 일본 놈 또 오지..”라고 혼잣말을 하였고 종지와 붓을 들어 「일쾌헌(一快軒)」이란 글씨를 써주었다.
- 7) 심적화평기 수성천지공(心積和平氣 手成天地功): 마음에는 화목하고 평온한 기운이 쌓이고 손으로는 천지의 공을 이룬다.

자유로운 돈키호테

석은 변종하 石隱 卞鐘夏

1926~2000

성북동 330-484번지. 자못 높은 검은 돌담 너머 수도원처럼 보이는 집이 한 채있다. 대문 안으로 들어서면 산자락에서 흘러내려온 물이 모여 연못을 이루고, 한쪽 면은 자연 그대로인 절벽이 막아 산 속으로 들어온 듯하다.

1980년 1월 1일 아침, 석은 변종하는 이 집에서 새해를 맞이했다. 자연을 품고 있는 이 집에는 눈에 띄지 않는 곳까지 석은의 손길이 닿아있다. 길가를 따라 쌓은 돌담은 석은이 심혈을 기울여 쌓은 하나의 작품이다. 각각 크기와 모양이 다른 돌을 제주도 돌담처럼 자연스럽게 쌓기 위해 일일이 일꾼들에게 작업 지시를 하여 조형미를 맞추었다.

담 안 쪽에는 남도까지 내려가 구해온 수형이 예쁘고 열매가 좋은 감나무를 심었다. 2층 화실 벽면에는 석고를 뭉쳐 던져 하나씩 퍼 바르고, 해마다 먹물을 먹여 자연스러운 색깔이 배어나게 했다. 한 해 한 해, 한지에 스며든 먹물 같이 열고 짙은 깊이감이 느껴지는 벽이 되어갔다. 집 곳곳에는 큰 창문을 여러 군데 두어 바깥 풍경이 집 안까지 들어오는 것 같았다. 달빛이 환한 날이면 2층 화실 천장 유리창에 비친 소나무 그림자 사이로 달과 별이 쏟아질 듯했다.



성북동 자택

대구에서 태어난 석은의 부친은 서예가 변성규(卞成圭) 선생이다. 6살 때부터 서예를 배우며 옛 글씨나 그림을 많이 보고 자란 석은의 필체는 힘 있고 균형 잡혀 있다. 작품에 향토성과 우리 민족의 정서가 느껴지는 것은 어린 시절 집안에서 보고 배운 전통에 대한 감각이 배어있기 때문일 것이다.

계성중학교를 다닐 때 대구출신 서양화가인 서진달*을 만나 그림을 배운다. 졸업 후에 학교에 다니며 수영선수로 활동한 이력 때문에 일본 해군하사관으로 뽑혔다. 일본이 전쟁에 열을 올리던 1943년 때이다. 수영을 잘하는 군인은 자살특공대로 뽑는다는 얘기가 들렸고, 부친의 강권으로 만주로 몸을 피해, 신경시립미술원(현 길림예술학교)에 들어간다.

전쟁이 끝난 뒤 귀국하여 미술교사로 지내며 대한민국미술전람회(이하 국전)에 입상, 추천작가로 활동하다 1960년 프랑스로 유학한다. 같은 시기 김환기*, 권옥연*, 한묵*, 남관* 또한 1960년대를 전후해서 서구권 국가로 떠나 일본을 거치지 않고 직접 서양의 미술과 문화를 받아들인 작가들이다.

1964년까지 프랑스·독일대표작가전(Exposition France-Allemagne)에 프랑스 대표작가로 작품을 출품, 유네스코 본부에서 연구비를 받아 유카탄반도에 있는 마야 문화유적을 답사하고, 미국에서 1년을 머문다. 귀국 후 대규모 개인전, 국전 심사·운영위원, 홍익대 출강 등 활발한 활동을 하던 중 당노합병증으로 쓰러져 13년이 넘는 투병생활을 시작한다. 석은은 손가락 하나 겨우 움직일 수 있을 때조차 그림을 포기하지 않고, 붓을 놓지 않았다. 투병 중에도 전시를 열고, 새로운 기법을 시도하며 지치지 않는 창작열을 보였다.

새로운 색과 질감을 찾아서

석은은 일찍이 현대적인 감각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도를 하여 화단에서 창조적인 역량을 보였다. 입체감과 생동감을 살린 ‘요철회화(凹凸繪畵)’를 그리면서 개성있는 작가로 인정받았다. 요철회화는 캔버스에 한지나 석고로 형상을 만들어 붙이고, 다시 그 위에 캔버스를 붙여 색칠을 하는 기법이다. 우리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연염료에서 얻은 색감을 표현하려고 특별히 주문해 만든 물감을 쓰기도 했다.

특유의 질감과 분위기를 띄고 있는 석은의 작품들은 작품마다 서명(署名)의 색과 크기, 재질을 달리한 특색을 보인다. 또한 캔버스에 시도하던 부조기법을 도자기 평면에 접목시킨 도화(陶畵) 작품을 선보였다. 이러한 독창적인 작품 속에는 옛 기법이 새롭게 살아났다. 우리 민족의 풍자와 해학을 담고, 한국미(美)의 아름다움을 작품에 표현했다.



도화, 1983



자화상, 1990

우리 것에 관심을 가진 석은은 국립박물관장을 지낸 해곡 최순우* 선생과 친분을 쌓으며 해곡 선생의 권유로 고미술품을 모았다. 고미술품 수집에 그치지 않고 그것들이 가진 예술성을 자신의 작품으로 끌어냈다.

젊은 시절 조선시대 분청사기 애호가인 일본인이 운영하던 연구소에 잠시 있던 적이 있다. 이때 물레질도 해보고, 도자기 공부를 할 수 있었다. 고미술품을 모으며 키운 안목과 도자 작업의 경험이 도화 작품의 밑바탕이었다. 석은은 도화에 분청사기나 청화백자의 기법을 응용하였고, 전승이 끊긴 황백자(黃白磁)를 여러 차례 실험을 거쳐 소나무와 참나무 재로 색을 재현해 작품으로 만들었다.

“한평생 옛것의 전통을 잇되 오늘에 맞는, 동시대인의 감정과 생활상을 자연스레 담아내려 했어요. 될 수 있으면 일부러 잘 그리려 혹은 멋있게 보이는 작품을 만들고자 하는 욕심에서 벗어나려 애썼어요. 더욱이 쓰러졌다 일어난 뒤론 우리 것, 한국인의 보편적인 정서를 지닌 작품을 만들어야겠다는 일념외에 다른 마음은 아무것도 품지 않았어요.”

-변종하의 말1)-

그림 외에 여러 방면에 관심과 재능이 있어 스스로 시를 쓰고 그림을 그려 여러 지면에 발표하기도 하였다. 1960년대 〈돈키호테〉, 〈우화〉 시리즈는 입체 회화로서도 주목할 만한 작품이지만, 문학성을 드러낸 작품들로 인상을 남겼다. 작품마다 이야기를 담아 문학적인 상상력을 보여주었는데, 〈서정적 풍경〉 시리즈는 문학작품을 읽고 느낀 감정과 추상을 이미지화 한 작품이다. 한편, 투병 중에 그린 129점이나 되는 〈자화상〉 시리즈는 “그림을 그리지 않으면 죽는다”는 심정으로 그려낸 병상일기이다. 손바닥만한 크기의 〈차라리 흠이나 되었으면〉, 〈나는 의연해야지〉, 〈어머니 그곳은 편안하십니까〉, 〈깊은 산속에서 살고 싶은 날〉 등 그날그날 심정과 표정을 담은 자화상에는 화가의 노력과 의지가 담겨 있다.

서정적 풍경

석은은 자신에게 엄격하고 작품을 대할 때는 치열했지만 여러 분야의 사람들과 두루 어울리며 의욕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하였다. 연말이 되면 지인들에게 보낼 연하장을 준비했다. 적당한 종이를 사서 크기에 맞게 마름질을 해 붙이고, 그 위에 그림을 그렸다. 연하장을 만드는 일은 자녀들까지 동원한 연례 행사였다. 뱀, 호랑이, 토끼 등 그 해의 띠 동물을 그려 보내기도 하고, 벚을 그리워하는 시조 구절을 적고 그림을 그려 보내기도 했다. 한 장 한 장 정성스럽게 그려 보낸 연하장은 해마다 지인들에게 보내는 작품 선물이었다.

친하게 지내던 김기창* 화백, 권옥연 화백, 김정숙* 조각가, 박용구* 음악평론가는 석은이 병으로 거동이 힘들 때 집으로 문병을 오기도 하였다. 한국전쟁 때 석은의 집으로 피난을 왔던 박두진*과 조지훈*, 정지용*, 김소월*, 고은* 시인도 친한 지인들이었다.

각별하게 지낸 혜곡 최순우 선생과 함께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미술대회나 전시 개막행사에 참여하기도 했다. 혜곡 선생이 돌아가시기 전 병원에 입원했을 때 석은은 그림을 그려가 오랜 병실 생활의 지루함을 달래주기도 하였다. 혜곡 선생은 그런 석은에게 아끼던 수련을 부탁하였고, 지금도 성북동 변종하미술관과 혜곡최순우기념관 마당에는 두 선생의 우정이 깃든 수련이 여름이면 함초롬히 꽃을 피운다.



〈서정적 풍경〉

또, 같은 취미를 가진 지인들과 교류하며 고미술품과 민속품을 수집하면서 일반에 알리는 활동도 하였다. 석은이 모은 6세기 신라시대 금동관, 고려청자, 조선백자 등 수준급 문화재는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되었다.

독자적인 요철기법과 전통 예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새롭고 창조적인 해석, 한국의 서정, 어린아이 같은 천진함과 낙천성, 그림으로써 병을 이겨낸 집념과 투지. 석은의 삶과 예술은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려준다.

세계 어느 도시를 가도 시내 중심에서 이처럼 가까운 곳에 완전한 자연이 있는 곳은 없다며 성북동 집을 자신의 이상향으로 여겼던 석은. 성북동 산자락에 그가 즐겨 그렸던 꽃이 피고, 새가 울 때면 “자연스러우면서 못난 듯한 가운데 볼수록 정겹고 아름다운 대목”을 찾아 평생 예인(藝人)으로 살던 석은 변종하를 떠올려본다.



성북동 자택 2층 이틀리에



성북동 자택에서

연보

1926년 대구 출생

중국 신경시립미술원 수학

수상

대한민국 은관문화훈장, 대한민국 문화훈장 등

개인전

유화전(1975), 선화랑 도화전(1985), 갤러리현대 · 조선일보 미술관 초대전
(1995), 박영덕화랑 ‘하늘은 늘푸른 잔디밭’ 전(1996) 등

초대전

Salon Comparaison(Paris, 1964), Exposition France-Allemagne(Munchen,
1964), Exposition Memoire de la Liberte(1992) 등

작품소장

국립현대미술관, 세종문화회관, 이중섭미술관, 한국은행 등

각주

1) 〈화업 50년 결산전 가져 변증하 화백〉, 한국경제신문, 1995.3.12.

자신의 조형언어를 찾아 새로움을 조각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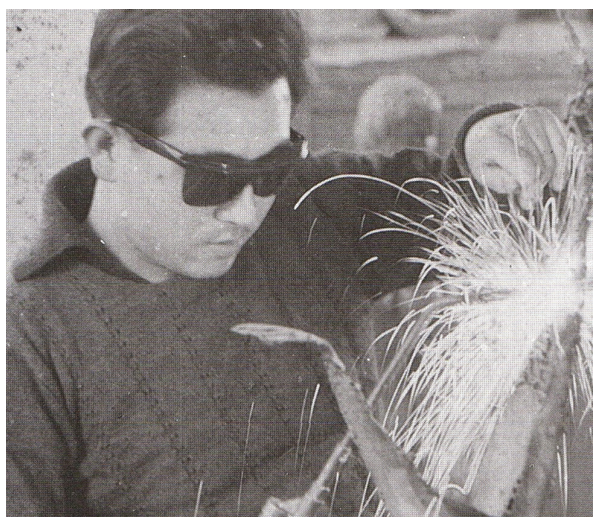
송영수 宋榮洙

1930~1970

고물장사, 함석쟁이. 새로운 느낌의 조각을 만들다.

삼촌이 가져다 준 헌 종이에 그림을 그리면서 예술가의 꿈을 키워갔던 한 소년. 1950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조소학과에 입학한 송영수는 대리석으로 조각을 하기 시작하여, 석고와 석조 인체상을 주로 만들었다. 집 마당에서 닭뺨를 모아 뼈의 구조와 움직임, 균형을 관찰하고 이를 작품에 반영하였다. 그래서인지 송영수가 제작한 인체상은 생동감이 넘쳤다.

195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철조작업은 석고와 돌, 나무로 만든 조각작품이 주를 이루었던 당시 조각계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송영수는 생활주변에서



철조작업을 하고 있는 송영수

쉽게 얻을 수 있는 소소한 재료를 작품 소재로 발굴하는 안목을 가지고 있었다. 집 근처인 원효로3가 일대는 철로 양쪽으로 철물점이 많았는데, 이곳에서 조각 재료를 구하곤 했다. 차갑고 날카로워 보이기만 했던 철은 그의 손끝에서 새가 되기도 하고, 소녀가 되기도 했다. 버려진 드럼통을 자르고, 두드리고, 펴고 또 다시 두들겨 철 조각을 만드는 것을 보고, 대학 선후배들은 송영수를 ‘고물장사’, ‘함석쟁이’라 놀렸다. 1960년대 말에는 동판이 등장했는데, 송영수는 동판 재질의 부드러우며 중후한 맛을 살려 조각 작품을 만들었다.



〈형상(形象)〉, 1957, 철,
12x20x20cm

이천에 도자기 가마가 많이 생기기 시작할 때는 흙으로 작품을 만드는 시도를 하였다. 불을 때어 온도를 맞추고 작품을 구워내는 테라코타는 계획했던 대로 작품을 구워내기가 쉽지 않았다. 그러나 꼼꼼하고 철저한 작업으로 〈여인과상(女人臥像)〉, 〈새〉, 〈근지〉 등 수준 높은 작품을 남겼다. 송영수는 다양한 재료와 표현으로 자신의 조형언어를 탐구하며 확장시켜 나간 조각가로 평가 받았다.

영원히 녹슬지 않을 조각

송영수는 1953년 11월 제2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이하 국전)에 여인입상 작품 〈희망〉으로 특선했다. 이후 제3회 〈가족〉, 제4회 〈악기 가진 여인〉, 제5회 〈향(響)〉이 연이어 특선을 수상하였다.

철·동·스테인레스와 같은 금속재료를 용접함으로써 작품을 완성하는 용접조각이나, 1960년대 들어서 왕성하게 건립한 다양한 기념조형물들의 제작을 통해 추상조각이 지니는 예술성을 일깨우는 역할을 하였다.

젊은 시절 성북고등학교에서 함께 교직생활을 한 인연으로 가깝게 지낸 이어령*은 송영수의 비문에 “피 없는 돌에 생명을 주고, 거친 쇳불이에 아름다운 영혼을 깃들이게 한 사람”이라 적었다. 돌, 나무, 철, 동, 스테인레스, 테라코타에 이르기까지 거칠디 거친 재료들을 조각작품으로 완성한 조각가. “그가 10년만 더 살았다면 서울의 풍경이 달라졌을 것”이라는 미술평론가 이경성*의 찬사처럼 송영수가 새롭게 시도한 조각작품은 비단 새로운 재료의 도입 일뿐만 아니라 조각계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었다.

추상조각과 추상수학은 서로 통한다.

수도여자고등학교에서 미술강사를 하면서 같은 학교 수학 교사였던 부인을 만났다. 미술과 수학, 전혀 통하지 않을 것 같은 두 분야의 만남이었지만 송영수는 “토폴로지(topology)라는 추상수학과 추상조각은 그 본질이 서로 통한다.”고 생각하였다. 두 사람은 교내에서 틈틈이 탁구를 치거나 남산에 함께 올라 인생관과 예술관을 이야기하곤 했다. 연애시절, 함께 작품을 출품하러 가기도 했고, 결혼 후에는 부인에게 작품 스케치를 설명해주거나 주물공장에 데려가기도 했다. 송영수에게 부인은 훌륭한 조력자였다.

“살아생전에는 너무나 행복하게 사시다 가셨어요. 매일 출근하실 때 옛날에는 버스나 전차를 타고 다니시잖아요. 그 버스나 전차 안에 앉으시면 뭘 꺼내는지 아세요? 스케치북을 꺼내요. 스케치를 하는 거예요. 이 양반은 그렇게 아이디어가 넘쳐서 떠오르는 거야. 작품 아이디어가 샘솟아서 언제 어디서나 작품이 나와요. 그리고 맨날 나에게 보여주며 ‘이봐 좋지? 좋지?’ 이래요. 그때마다 ‘정말 예술가들은 행복 하구나’ 라고 부러워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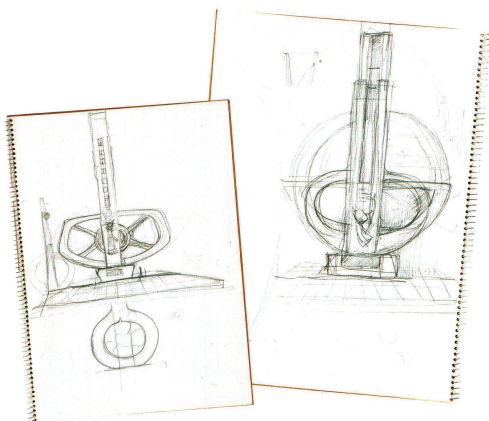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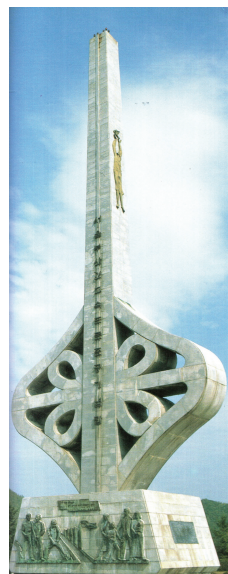
-부인 사공정숙의 회고-

이미 대학원 재학시절 국전에서 몇 차례 특선을 한 송영수는 제6회 국전에 추천작가로 처음 철조 작품 〈형상〉과 〈효〉를 출품하였다. 투박한 철이 예술작품의 소재가 되리라는 생각이 예상 밖이었던 당시, 새로운 시도로 조각계의 주목을 받았다. 교수재직시절에도 활발하게 작품 활동을 하면서 학생들과 밤늦게까지 학교나 성북동집에서 작업을 하였다.

1970년에 서울-부산 간 고속도로 개통과 때를 맞추어 서울, 추풍령, 부산 세 군데에 추상조각을 세워 달라는 건설부의 주문을 받았다. 송영수는 “우리나라도 이제 추상조각을 알아주는 때가 왔어.”라며 감격해 마지않았고 세 곳의 추상조각 조감도 여섯 장을 그리는데 매진하였다. 그러나 계획단계 마지막에 세 곳의 조각을 한 장소에 합쳐서 추풍령에 큰 탑을 세운다는 결정이 났다.

예술작업의 어려움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 아쉽기도 했지만, 다시 밤낮으로 조감도를 구상했다. 그간 쌓인 피로 탓일까, 조감도를 완성하고 대통령에게 보고만을 남겨놓은 때 그만 쓰러지고 만다. 병원으로 옮겼지만 오진(誤診)으로 심장마비가 와 아까운 나이에 생을 마친다.

그해 12월. 마지막 작품인 추풍령 경부고속도로 준공탑은 부인의 노력으로 세워진다. 추상조각과 추상수학의 만남이 있었기에 작품이 완성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추풍령 기념탑 드로잉과 완공된 기념탑

소나무와 바위가 좋은 집

1965년 동숭동에 있던 학교와 가까운 성북동으로 이사를 했다. 느티나무 마을이라 불릴 정도로 주변에 나무가 많은 곳이었다. 송영수의 집은 소나무와 바위가 어우러진 터였고, 건너편으로는 북단장(현재 간송미술관) 산이 보여 풍경이 좋았다. 조각가답게 집을 둥글고 멋지게 지었으나 당시는 건축자재가 좋지 못해 여러 번 개보수를 했다.

쌍다리 아래로 흐르는 개천과 큰 바위들을 따라 내려가는 출퇴근 길은 한적하고 아름다운 성북동의 모습을 만끽할 수 있는 길이었다. 성북동에 이웃해 살고, 같이 서울대에서 교직 생활을 한 화가 우송 전성우와 종종 퇴근을 함께 했다. 퇴근길에 북단장 우송의 집에 들러 저녁을 먹으며 조각과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동료였던 화가 김태*와도 자주 교류하였는데, 서로 마음에 들어 하는 작품을 바꿔가지기도 했다. 서울대 공사장에 널려있던 나무조각으로 만든 작품 〈새〉와 맞바꾼 김태의 유화그림은 지금도 성북동 집 거실에 걸려있다.

작품에 열중하는 시간이 많아 아이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적었지만, 부인과 집안 구석구석을 꾸미거나 막내아들을 무등 태워 마당을 거닐며 행복해 하는 따뜻한 아버지였다. 성북동 집은 송영수에게 더없는 행복의 공간이었다.

“여보, 난 참 행복해! 상기(막내아들)도 옆에서 귀엽게 재롱떨고, 조각을 마음껏 만들 수 있는 아틀리에도 집에 있고, 많은 사람이 내 조각을 좋아하고, 나는 너무 행복해.”

-송영수의 말1)-



성북동 자택에서

성북동 자택 현관에는 드로잉 작품 두 점이 걸려있다. 생전에 송영수의 호주머니나 책상 위에는 스케치북이 항상 떠날 날이 없었다. “추상조각을 만들려면 반드시 구상적인 바탕이 있어야 하는 것”이라며 그린 백여 권의 스케치북에는 끊이지 않는 아이디어가 담겨 있다.

자신의 조형언어를 표현하기 위하여 밤낮없이 작품활동에 몰두했던 조각가 송영수. 작고하던 해인 1970년 이전까지 십 수년에 불과한 짧은 기간에도 훌륭한 작품들을 많이 남겼다. 그를 기리는 전시는 40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송영수가 더없이 행복한 삶을 누렸던 성북동 집에는 추억과 사연이 깃든 작품들이 보관되어 있다. 마당 뒤쪽으로 바위와 느티나무 사이의 계단을 올라가면 〈사명대사〉, 〈원효대사〉 같은 동상과 추상조각을 만들던 작고 허름한 작업실이 나타난다. 마당에는 석굴암 보살상 부조와 석상, 철 조각들이 그가 평소 좋아하던 소나무, 바위들과 어울려 작품을 하던 때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성북동 자택 마당의 석굴암 보살상 부조와 작업실



성북동 자택의 전시실

연보

1930년 서울 출생

1958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 학사. 석사 졸업

경력

성북 중고등학교 교사,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교수, 국전심사위원, 애국조각 건립위원회 전문위원, 국전추천작가(1957), 국전초대작가(1965)

수상

제2,3,4회 국전 특선, 제5회 서울미대전 장려상, 제6회 서울미대전 학장상

전시(유작전)

신문화랑(1971), 신세계화랑(1972), 그로리치화랑(1992), 국립현대미술관 (1999, 2000, 2010), 가나아트센터(2001), 모란미술관(2003) 등

작품소장

호암미술관, 고려대학교 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모란미술관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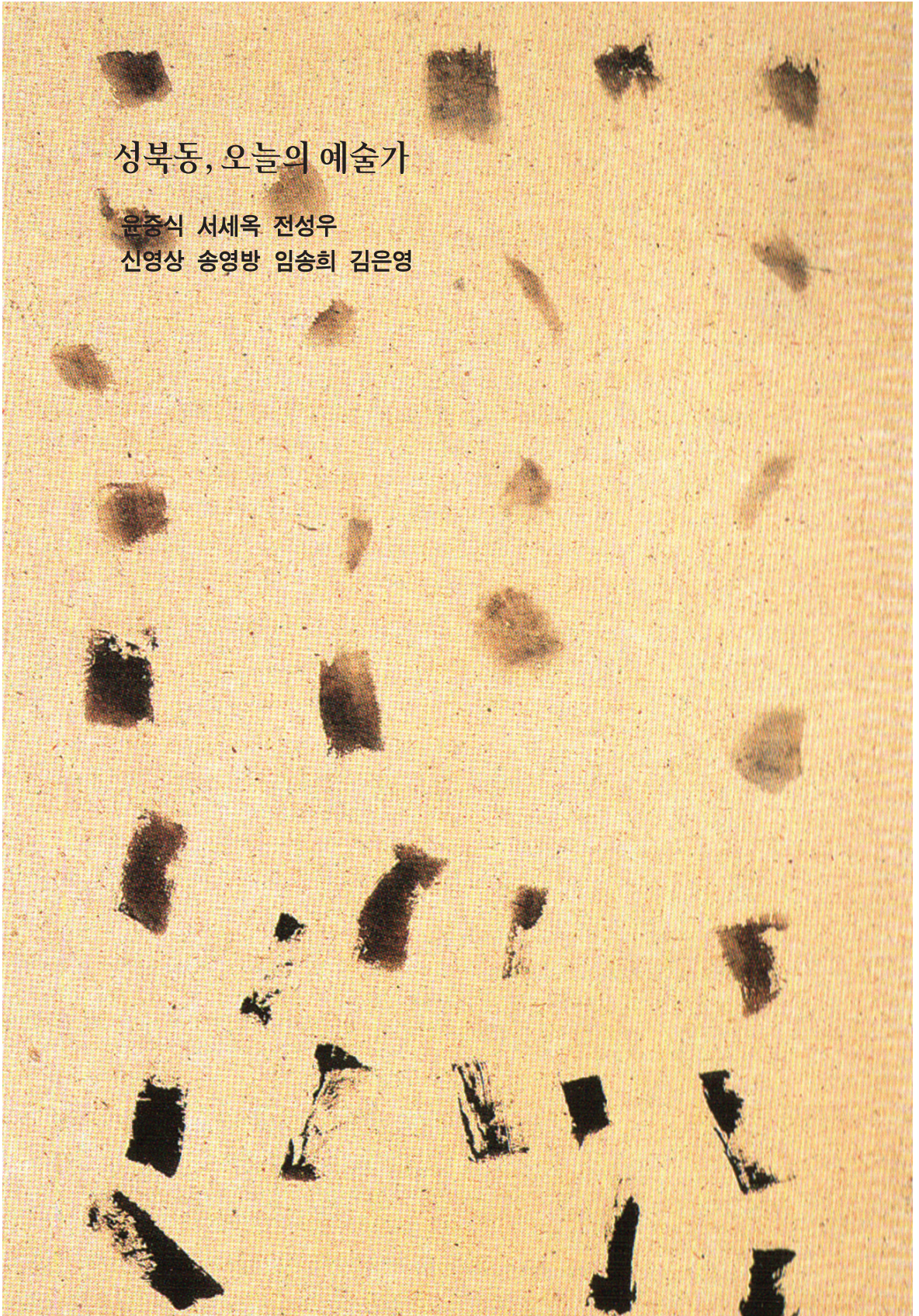
각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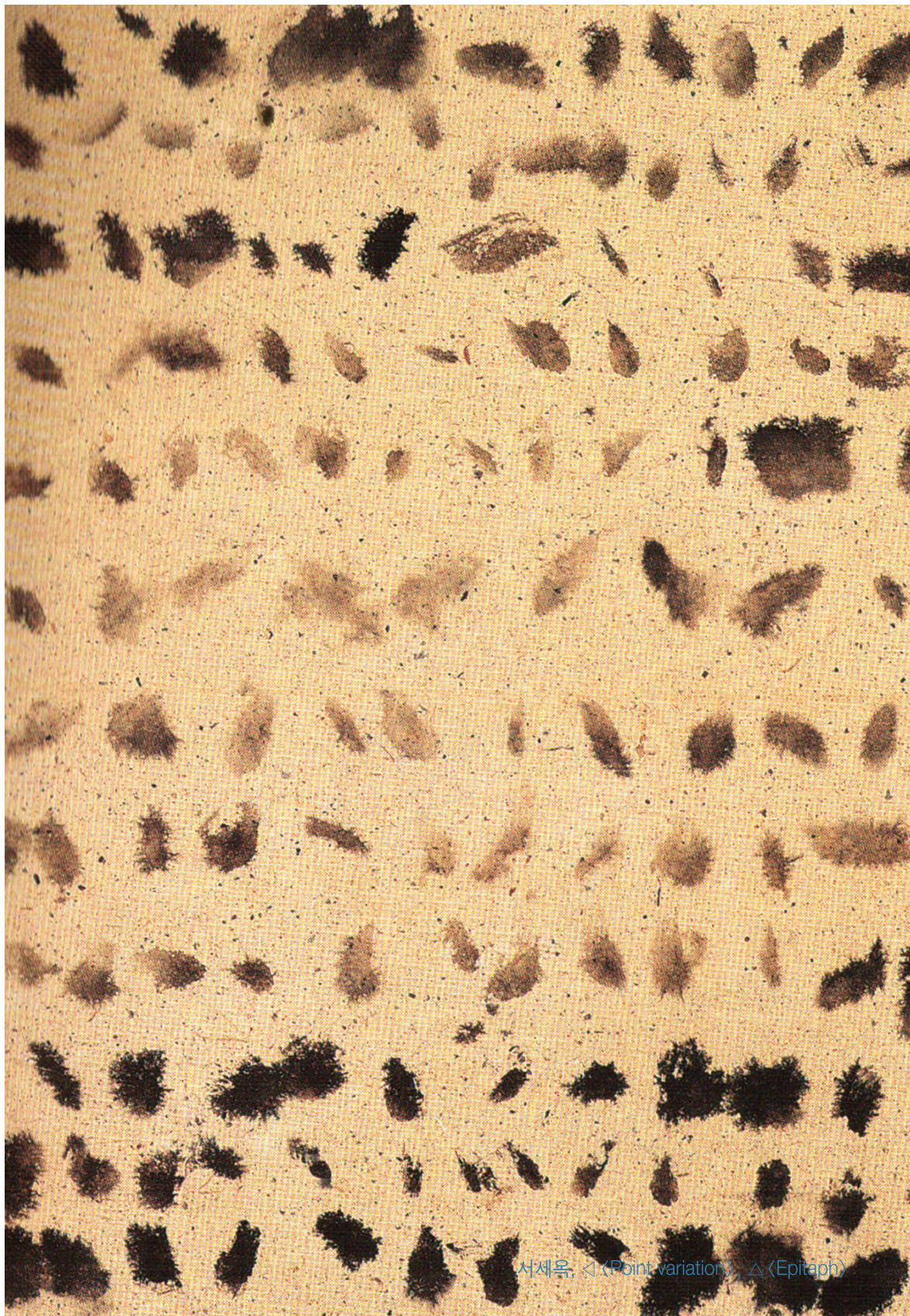
1) 『거친 쇠붙이에 깃들 영혼-철조각의 선구자 송영수』, 아트북스, 2001, 26쪽.

성북동, 오늘의 예술가

윤중식 서세옥 전성우

신영상 송영방 임송희 김은영





서세옥 ◁ (Point variation), ▷ (Epitaph)

고향, 평화를 그리다

윤중식 尹仲植

1913~

서양화가 윤중식은 1913년 평양에서 태어났다. 학창시절에는 연극배우, 연출가, 지휘자를 꿈꿨을 정도로 예술적 재능이 풍부하였다. 아코디언을 능숙하게 연주하고, 수영대회에서 입상을 할 정도로 수영실력도 뛰어났다. 그렇지만 자신의 감성과 생각을 가장 잘 표현하고, 예술성을 발휘할 수 있는 매개는 그림이었다.

중학교 때부터는 자주 들판으로 사생을 나가 농촌과 대동강변의 풍경을 즐겨 그렸다. 강가에서 그림을 그릴 때면 뉘엿뉘엿 넘어가는 저녁노을의 아름다움에 감격해 한참을 우두커니 바라보기도 했다. 평양에서 10여리 떨어진 감홍리에는 옥수수더미가 깔린 밭이 펼쳐져 있었다. 옥수수 밭에 누워 따스한 햇볕을 쬐다가 밀려오는 졸음에 눈을 감으면 바람 소리, 이름 모를 곤충들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아직도 윤중식의 기억 속에는 그때 그 고향의 풍경, 소리, 냄새 하나하나가 남아 있다.



〈아침〉, 1983, 캔버스에 유채, 46x61cm

1931년 숭실중학교 재학 당시 제2회 녹향회(綠鄉會) 공모전과 제10회 조선미술전람회에 입선하면서 화단에 진출하였다. 조선미술전람회 서양화부에 출품한 작품 〈농촌풍경〉은 ‘광선을 재미있게 표현했다’는 평을 받았고, 11회, 12회에 연이어 입선을 하면서 유화실력을 인정받았다. 당시 평양에는 김관호* 선생의 영향으로 어느 지역보다도 서양화가 지망생이 많았다. 김관호는 고희동*과 함께 한국 서양화 개척의 선구 역할을 하였는데, 평양에서 삭성회(朔星會)¹⁾회화연구소를 중심으로 후진 양성에 힘썼다. 종종 부친을 만나러 집에 온 김관호 선생은 화실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윤중식을 눈여겨 보곤 했다. 대동강변에 나가면 선배화가들이 이젤을 펼쳐놓고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다. 그때마다 그 모습을 해가지는 줄도 모르고 지켜보곤 하였다. 1935년, 일본으로 유학하여 자신만의 독특한 양식을 개척해 나가며, 화가로서 역량을 키웠다.

다재다능 했던 윤중식은 한때 연출가의 꿈을 꾸기도 했다. 졸업 후에는 연극과 영화사업을 하던 동경 동보영화촬영소 미술부에서 무대 디자이너로 일했다. 1941년에 귀국을 하여 평북 선천 보성여자고등학교 미술교사로 학생들을 가르쳤다. 교사 생활 중에도 꾸준히 작품활동을 하여 이듬해에는 제21회 조선미술전람회에서 〈석영(石映)〉²⁾으로 입선하였고, 1943년에는 평양에서 6인전을 개최하였다.

고향에서 맞이한 해방, 그러나 기쁨도 잠시, 한국전쟁이 일어났다. 전쟁은 사회 전체를 가난에 빠뜨렸다. 캔버스를 구할 수 없어 베니어판(나무판자)에 그림을 그리고, 다시 지우고 또 그리곤 했다. 대구와 부산 등지에서 피난생활을 하면서도 작품활동을 멈추지 않았다.

1953년에는 제2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에서 〈가을풍경〉으로 특선을 수상하고, 1954년 6월에는 윤중식 첫 개인전시회를 개최하였다. 이후 꾸준하게 작품 활동을 이어가며, 한국의 서양회화 도입 시기에 선구적인 역할과 개성적인 조형세계를 이룩한 화가로 평가받았다.



〈정물〉, 1990, 캔버스에 유채, 53x45cm

고향을 그리는 화가

전쟁으로 고향과 가족을 잃은 윤중식에게 한국전쟁은 크나큰 아픔이었다. 1·4후퇴때 1남 2녀를 데리고 남쪽으로 내려오는 중에 피난인파에 섞여 아내, 딸과 해주 근처에서 헤어졌다. 고생 끝에 두 아이와 한 달 만에 서울에 도착했으나 둘째딸마저 부산에서 병으로 잃었다. 1959년에 재혼을 한 후 두 딸을 낳으며 서울에서 생활의 안정을 찾는다.

고향과 가족에 대한 영원한 그리움은 그의 작품에 흐르는 심상(心想)이다. 고향을 상징하는 소재인 저녁노을, 비둘기, 돛단배, 시골풍경은 따뜻하고 포근한 어린시절 고향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것들이다. 간결한 형상으로 어린 시절의 감성을 그대로 담아낸 그림 속 세계는 마치 시간의 흐름이 멈춘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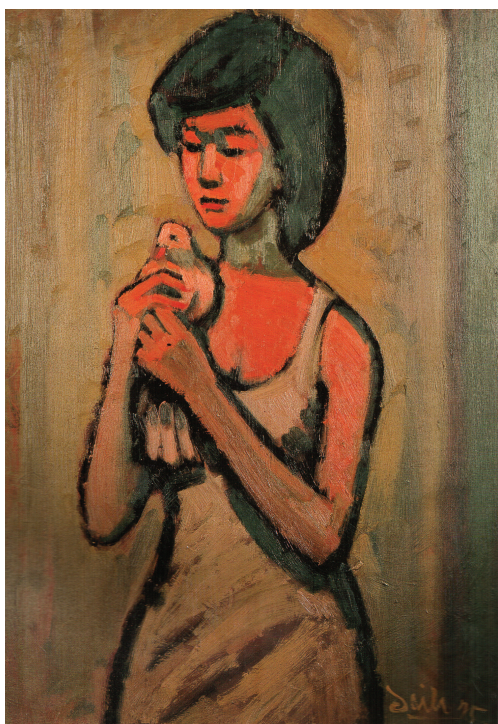
“새벽과 놀만이 색을 가지고 있다”

-윤중식, 1973년 개인전에서-

저녁노을은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고 애착을 가지는 소재이다. 대동강변에서 하염없이 바라보며 가슴 속에 새겨두었던 저녁노을이다. 자주 등장하는 소재인 비둘기 또한 그가 추억하는 고향의 한 단편이다. 어렸을 때 비둘기를 관찰하고 저마다의 성격을 구분하길 좋아했다. 생김새도, 몸짓도 어느 하나 똑같지 않은 그림 속 비둘기들은 제각각의 다른 의미를 지닌다. 때로는 평화를, 때로는 고향집과 가족을 상징하는 비둘기는 윤중식의 이야기를 전하는 매개체이자, 그 자신이기도 하다.

“평양(平壤)에서 미곡상과 정미소를 하던 우리 집에는 비둘기 1백여 마리가 살았다. 그놈들은 철저하게 1부1처제를 지키면서 인간세계처럼 부부간의 애정은 말도 못할 정도였다. 나는 비둘기 집을 여러 개 만들어 처마 밑에 달아 주곤 했다. 나는 내 맘속에 살아 있는 그때의 비둘기들을 그리는 셈이다. 즐겨 그리는 저녁놀 역시 중학교 때 사생하러 들에 나갔다가 그 뒤로 계속 그리게 된 것이다.”

-윤중식의 말3-



〈소녀〉, 1975, 캔버스에 유채, 50x37cm

성북동 골짜기를 맴도는 비둘기

클래식 음악이 항상 흐르는 화실은 성북동 풍경이 훤히 내려 보이는 언덕에 있다. 윤중식에게 성북동은 제2의 고향이다. 1963년 맑은 계곡물이 흐르고 우거진 숲이 아름다운 성북동으로 이사하여 작품 활동을 하는 것도 어느덧 50년이 다되었다.

2층 화실에서 멀리 풍경을 내다보고 있노라면 한여름의 더위도 가셨다. 어릴 때 처럼 사람이 사는 주변을 맴도는 비둘기를 관찰하며 한나절을 보내기도 했다. 성북동 골짜기를 아슬아슬하게 날아다니던 비둘기들도, 고향집의 비둘기들도 윤중식의 그림 속에서 새로운 번지를 찾았다.

반평생을 사는 동안 이곳에서 수많은 추억을 쌓았다. 숲이 우거진 뒷산은 비가 오면 물이 폭포를 이루어 흘러내렸다. 철마다 다른 풍경을 보이는 뒷산은 즐겨 그림을 그리는 장소이며, 손녀들과 함께 나들이하는 행복의 장소이다.

“유달리 금년 여름은 혹서에 시달렸다. 2층 화실 지붕이 함석이고 보니 타오르는 열기에 제작하는데 있어 느리게 마련이다. 고지대에 살고 있는 덕분에 멀리 바라보이는 앞산과 그리고 성북동 골짜기에서 빙빙 맴돌며 날아오는 하이얀 비둘기 떼를 볼 수 있다. 높은 허공에서 허우적거리며 난무한다. 선두에선 놈이 아슬아슬하게 급강하 하면 뒤따르던 놈들도 같은 방향으로 따른다. 건물과 건물사이를 유성처럼 날아다니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한결 황홀해지고 유혹적인 묵험[冒險]과 쾌감을 느끼게 된다.”

-윤중식의 말4-

저녁노을의 빛깔을 누구보다도 아끼고 사랑했던 화가 윤중식.

2010년 7월 28일, 성북구립미술관 개관 기념전⁵⁾에는 한국 근현대 미술사의 산증인인 원로작가들의 작품이 전시되었다. 98세, 최고령 작가로서 출품한 작품은 그 세월만큼이나 묵직한 존재감을 보였다. 그림 속에 삶과 추억을 담은 윤중식은 ‘그리고 또 그리는’ 작업 속에서 행복함을 느낀다.

“가난했던 시절, 가슴 아픈 일도 있었지만, 그림만 그릴 수 있다면 행복했다. 그림 안에서 행복함과 아름다운 세계를 발견한 것이다.”

-윤중식의 말-



〈성북동 스케치〉, 1971



성북동 자택에서

연보

1913년 평안남도 평양시 출생

동경 제국미술학교 서양화과 졸업

경력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 교수, 국전 심사위원, 대한민국미술대전 운영위원장

수상

서울문화상, 은관문화훈장, 대한민국 예술원상(미술부문)

개인전

화신백화점 화랑(1954), 동화백화점 화랑(1956), 뉴욕 월드 하우스 갤러리(1958), 반도화
랑(1962), 신문회관화랑(1968), 현대화랑(1971,75,76,78,82), 조선포텔 화랑(1973), 갤러
리 현대 30주년 기념전(2000) 등

작품소장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대한민국예술원 미술관

각주

- 1) 삭성회(朔星會): 전국적인 규모의 전람회를 개최하는 등 뚜렷한 활동을 펼쳤다. 삭성회 출신에는 권영덕, 최연해, 계영철, 전화황, 박영선, 최연해, 현이호 등이 있다.
- 2) 석영(夕映): 저녁 때의 햇빛. 또는 저녁 때 저무는 해 석양(夕陽)과 같은 뜻.
- 3) 박래부, 〈고향들녘의 아스라한 정취(情趣)가 생생히-윤중식의 풍경화〉, 한국일보, 1992.4.22.
- 4) 윤중식, 〈노염 식히는 나의 화제 성북동 골짜기, 맴도는 비둘기떼에 쾌감〉, 경향신문, 1971.8.18, 2면.
- 5) 성북구립미술관 개관기념전 'The Presence' (2010.7.29~9.12)에는 권옥연, 문학진, 박서보, 서세옥, 오승우, 윤중식, 이규호, 이준, 전뢰진, 전혁림, 최만린의 작품이 전시되었다.

사람에 대한 지극한 관심을 작품에 담은 화가

산정 서세옥 山丁 徐世鈺

1929~

성북동 산허리에 자리한 무송재(撫松齋).

우리나라 전통 한옥의 아름다움과 자연을 담은 이곳은 세계적인 작가이며 한국화단을 이끈 산정 서세옥 화백의 집이자, 그 예술의 산실이다. 집안에는 옛 책과 수석, 그리고 소나무와 대나무, 매화나무가 어우러져 있다.

산정은 애국지사요 독립운동가였던 부친 서장환* 선생의 영향으로 어릴 때부터 역사의식이 뚜렷하고 독서에 심취하였다. 일본 경찰이 수시로 집에 들이닥쳐 역사서와 선조들의 문집을 압수해갔다. 마음 편히 책을 읽기 어려워 밤낮을 바뀌 한밤중에 서고에 숨어 책을 읽곤 하였다. 성장기에 읽은 동서 전적들은 산정의 사상을 이루는 자양분이 되었다.

“노자의 도덕경은 지금도 가끔 읽습니다. 철학이나 미학 등을 담고, 고전이지만 현대적인 미의 세계를 보여주지요. '밖으로 나타나는 풍경과 색은 변하기 마련이니 그 속에 있는 것, 그 본질을 그려야 한다'는 도덕경의 내용에서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서세옥의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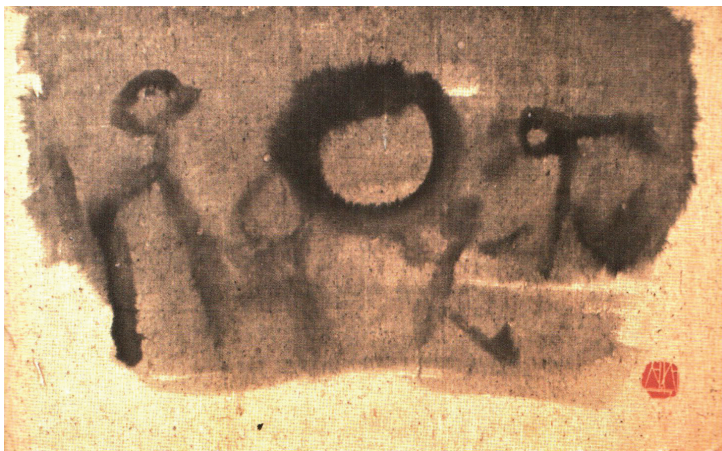
무송재

해방 후 1세대 작가로 1950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화과를 제1회로 졸업한 산정은 동양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가 가운데 가장 혁신적이고 핵심적인 인물로 평가된다. 1946년에 신설된 서울대학교 미술학과는 김용준*을 중심으로 일본의 영향에서 벗어나 한국적인 양식의 동양화풍을 정립하였다. 산정은 작품활동 초기부터 추상성과 단순성을 바탕으로 현대적 동양화를 개척했다. 재학시절 해마다 개최한 대학미전에서 연속 최고상을 차지하였으며, 1949년 제1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이하 국전)에서 최고상을 수상, 잇따라 상을 수상하며 당시 가장 뛰어난 신인 작가로 각광받았다.

그러나 1950년에 일어난 한국전쟁으로 화가들도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국방부 종군화가단이 발족되고, 종군화가들은 대구와 부산, 서울로 옮겨 다니며 전쟁의 참상과 현장을 그렸다. 산정은 60대 대 선배들로 구성된 화가단에 젊은 작가로 참여하게 된다.

1954년 폐허 속에서 개최한 국전에 출품한 〈운월의 장〉은 우리 미술사상 처음인 새로운 표현양식으로 전쟁과 민족의 비극을 승화시킨 작품이었다. 1950년대 후반부터는 〈점의 변주〉·〈선의 변주〉 등 점과 선의 파격적인 수묵 추상작업으로 한국현대미술에 연속하여 새바람을 일으켰다.

1960년 산정은 그의 지도를 받은 졸업생들을 모아 묵림회(墨林會)¹⁾를 창립하여 동양화의 새로운 진로를 개척하는 중심 역할을 하였다. 서양화와 동양화를 나누기보다 세계적인 새로운 조형질서를 제시하여 새 시대의 언어로서 회화세계를 정립하고, 국내외에서 다양한 작품을 발표하며 활발한 활동을 하였다.



〈태양을 다투는 사람들〉, 1967, 닥종이에 수묵, 72x92cm

사람(人)에 대한 지극한 관심

산정의 작품에는 사람, 사람들, 기다리는 사람, 거꾸로 선 사람 등과 같이 사람에게 대한 투철한 관심을 볼 수 있다. 추상적이고 상징적인 모습을 담은 ‘인간 시리즈’는 여러 사람이 같이 기뻐하고 슬퍼하며 조화롭게 살아가는 모습을 예술적으로 형상화 한 것이다.

산정 서세옥 선생의 인간주재 그림들은 인간의 기쁨과 슬픔, 고독과 어울림, 그리고 살찐자와 굶주린자, 떠오른자와 숨은자 등 오늘을 살고 있는 인간의 연희(演戲)와 표정들을 때로는 따뜻한 미소로서 또는 해학으로, 때로는 서릿발같은 역사의식으로 준엄하게 붓끝으로 고발한다.

그 풍격(風格)의 절대경지에 이르지 않고서는 누구도 꿈꾸어 볼 수 없는 경지이다. 그는 옛 낡은 외투를 몽땅 벗어던지고 현대 한국미술의 진로를 열어놓은, 우리 시대의 큰 스승이요, 정상의 거장이다.

-평론가의 작가론 중에서 2-

‘인간 시리즈’는 1970년대 〈군무〉, 〈군상〉, 〈기다리는 사람들〉, '80년대 〈사람〉, 〈원무〉, '90년대 〈사람들〉, 〈춤추는 사람들〉 등으로 이어졌다. 다양한 인간 군상들을 서예 필법으로 담아내는 산정의 그림은 ‘인간의 옷을 모두 벗겨내고 자신이 지은 옷을 입히는 작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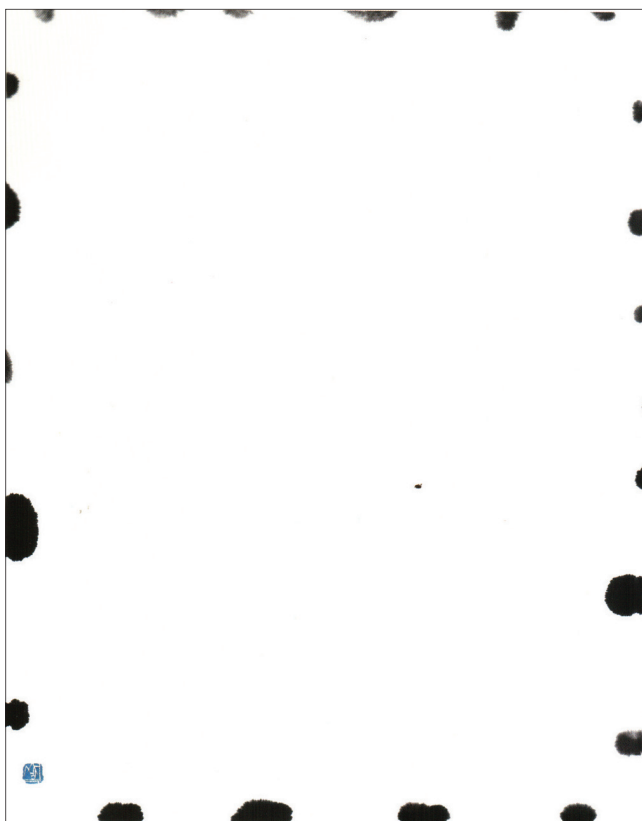
“하나의 점을 끝없이 이으면 선이 되고, 긴 선을 끝없이 접어 들어오면 하나의 점이 됩니다.”

-서세옥의 말-

점에서 시작되어 만들어진 인간상의 그림은 대상의 내면까지 드러낸다. 어느 미술평론가는 산정의 인간시리즈에 대하여 ‘가장 단순한 몇 개의 선으로 표현될 수 있으면서 동시에 풍부한 동작과 표정을 지닐 수 있는 내용이 다른 어떤 인간이란 점에서 그가 추구해 왔던 표현 세계의 한 귀결이다’라고 하였다.

미국과 유럽, 아시아 등 세계의 대표적인 미술관에서는 특별전, 회고전, 순회전을 열어 산정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다. 그때마다 현지의 신문, 미술전문지들이 주목하여 기사를 실는다. 산정에 대한 저작물과 자료는 모두 수집하기 어려울 정도로 방대하다.

산정은 그림 외에 전각과 한시에도 조예가 깊다. 서재 한편의 넓은 책상에 놓인 수 백개의 전각(篆刻)³⁾ 작품은 그림에서 볼 수 없는 또 다른 높은 예술 세계를 보여준다. 화폭과 돌, 문자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은 모두 한 뿌리에서 나온 것이며, 자신만의 경지에 오르는 일일 것이다.



〈구름이 흩어진 공간〉, 1977, 닥종이에 수묵, 128x101cm



성북동 자택 서재에서
무송재를 방문한 세계 각국의 미술계인사

전통과 아름다움을 담고 있는 무송재(撫松齋)

1973년, 산정은 소나무 숲이었던 성북동 언덕에 창덕궁 연경당에서 본 떠 스물 다섯 평짜리 열네 칸집 사랑채를 짓는다. 뜰 앞에는 하늘로 치솟은 소나무들이 서 있다. 손으로 소나무를 어루만지는 집이라는 ‘무송재’는 소나무처럼 변함없이 살고자 하는 뜻이 깃든 집이다. 온통 소나무 숲이었던 이곳에 집을 지으면서 땅과 나무를 일부러 골라 없애거나, 인공으로 연못을 만들지 않았다.

전통 한옥의 아름다움에 집안의 옛 목가구들이 소박하고 단아한 멋을 더한다. 앞뒤마당에는 진달래와 산수유, 매화나무가, 그리고 노송들이 집을 감싸고 있고, 뒷마당에는 대나무가 시원하게 뻗어 있다. 한국의 전통과 자연적인 아름다움을 담고 있는 무송재에는 세계 각국의 미술전문인사, 애호가들의 탐방이 이어진다.

무송재 마당 곳곳에는 산정이 모아온 특별한 역사와 이야기가 담긴 수석과 석물들이 있다. 근원 선생이 살던 성북동 집 ‘노시산방’에 주인을 잃고 버려졌던 수석을 비롯하여 성수침(成守琛)*의 청송당(聽松堂) 앞뜰에 놓였던 수석, 일제강점기 총독부 관료들이 고려 궁터에서 서울 관사로 옮겨 놓았던 수석과 석대 한 쌍, 신라와 고려, 조선시대 불상 조각 등 다양하다.

우리 역사와 문화를 중시하고, 선조와 스승을 찾아 배우고, 보존하는 것은 짧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산정이 중요시하는 가치이다. 영운 김용진*, 근원 김용준, 소전 손재형* 등 당대 거목들을 가까이에서 만나고 그분들의 정신과 자취를 남기려는 노력을 하였다.

산정은 성북동에 이사를 온 뒤 근방의 문화유적들을 찾아다니곤 했다. 성북동은 발길 가는 곳마다 역사적 흔적이 남아있었지만 세월이 흐르며 하나둘씩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다. 큰 물길을 이루며 흘러내리던 개천과 커다란 바위, 사람들이 소원을 빌던 기도바위와 미륵당, 민영환*의 별장 음벽정(飲碧亭)⁴⁾, 오원 장승업이 지내던 작은 초가집⁵⁾과 근원이 살던 노시산방, 만해 한용운의 심우장, 춘원 이광수*가 글을 쓰던 청룡암, 소설가 이태준의 수연산방 등 발길 닿는 곳마다 문화와 역사 유적들이다.

60년을 넘게 그림과 함께한 산정은 ‘과거의 울타리를 초월한 정신이 흐르는 그림은 어디에 내어놓아도 즐거운 그림이 된다’는 자신의 말처럼 얽매임 없는 해방과 자유로움을 추구한다. 그가 사람 키만 한 큰 붓을 잡고 거침없는 획을 그어나가는 힘안에는 세밀함과 정교함이 담겨 있으며 한 순간도 똑같지 않은 무한한 창조력이 꿈틀대고 있다.



〈춤추는 사람들〉, 1988, 260x160cm



성북동 자택에 있는 아틀리에에서

연보

1929년 대구 출생

1950년 서울대학교 예술대학 미술부 제1회 졸업, 1998년 미국 리스디대학 명예미술학 박사

경력

한국미술협회 이사장, 한중미술협회 회장, 서울대학교 교수·학장·명예교수, 대한민국 예술원 회원, 성북구립미술관 명예관장

수상

제1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 국무총리상(1949), 제1회 국전 초대작가상(1961), 제3회 국전 문교부장관상 서울시문화상, 일민미술상, 의재미술상, 자랑스러운 미술인상, 한국현대미술거장상, 대한민국 예술원상 등

전시

한중국작가와 교류전(1989), 상파울로비엔날레(1963), 칸느국제회화제, 현대동양화초대전, 한국현대미술파리전, 아시안 퍼시픽미술관 ‘서세옥전’, 국립현대미술관 ‘서세옥 회고전’ (2006), 미국 휴스턴 국립미술관 ‘서세옥 회고전’ (2007~8), 일본 동경 에르메스 미술관 특별전(2007~8) 등

작품소장

프랑스 문화부(프랑스), 후쿠오카미술관(일본), 대영박물관(영국), 휴스턴미술관, 아시아퍼시픽미술관, 리스디미술관, 바룩카래지미술관, 카운티미술관(미국), 로열온타리오 박물관(캐나다) 등

각주

- 1) 묵림회: 서세옥의 창립으로 그의 지도를 받은 남궁훈, 민경갑 등 서울대 미대 동양화와 출신으로 구성되었다. 전통회화의 고루한 답습을 탈피하고 여러 방법을 실험하면서 전통 수묵의 기법을 현대회화에 도입하였다. 묵림회는 1964년 제8회전을 끝으로 해산되었으나, 이후 동양화단의 새로운 방법 모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 2) 『사람 그 삶의 참모습』, 술과 학, 2002.
- 3) 전각(篆刻): 돌 따위에 글자를 새기는 것, 또는 이름이나 호를 새긴 인장(印章)이나 그 글자를 말한다. 독립된 예술로서 보면 작가 개성이 담긴 예술성과 조형성을 갖는 분야이다.
- 4) 지금 뽕의 바다에 있던 민영환(閔泳煥, 1861~1905)의 별장으로 규모가 큰 한옥과 양옥 건물이 있고, 뜰에는 괴석이 놓여있었다. 민영환은 원세개(袁世凱, 1859~1916)를 이곳에 초대하기도 하였다(산정 서세옥 인터뷰, 2009~2010).
- 5) 지금 성북동 1가 성북1치안센터가 있는 골목 안쪽에 장승업의 집이 있었다. 화가 고희동과 김용진이 장승업과 어울릴 때 살았던 집이라고 한다. 산정이 20대 때 찾아가보니 초가집이 그대로 있었는데, 사랑채 벽 한 쪽이 밀려 있었다. 장승업이 키가 커서 자면서 벽을 밀어낸 것이라 한다. 산정이 1995년 미술의 해 위원장으로 있을 때 제 자리에 집 표지석을 세워놓았으나 주택가로 개발이 되면서 성북동 74-1번지에 있는 성북전시관 외벽에 붙여놓았다(산정 서세옥 인터뷰, 2009~2010; 『우리동네 잊혀져가는 옛이야기를 찾아서-성북동1』, 31쪽).

내 마음의 고향, 만다라의 세계
우송 전성우 雨松 全晟雨
 1934~

성북동 북단장

아직도 소나무와 고즈넉한 정취가 남아있는 이곳에는 예술과 학문과 역사가 깃들어있다. 큰 바위 위로 맑은 물이 흐르고, 꿩과 토끼가 뛰노는 소나무 숲, 아버지 간송 전형필* 선생이 모은 문화재와 예술품으로 둘러싸인 북단장(北壇莊),¹⁾ 우송이 평생을 살아온 고향이다.

어린시절 살던 한옥에는 위창 오세창* 선생이 쓴 글씨와 심산 노수현* 선생이 그린 그림이 가득했다. 북단장에 대한민국미술전람회²⁾ 출품을 준비하는 작가들이 와 있을 때면 하루 종일 그림 그리는 것을 구경하며, 서양화가들과 라파엘, 미켈란젤로에 대해 얘기하기도 하고, 저녁에는 심산 선생이 그림을 그리시는 옆에서 먹을 갈기도 했다. 그림을 보는 안목과 멋과 풍류는 자연스럽게 몸에 배었다. 아버지는 동기인 청구 이마동*선생 보다 미술 성적이 좋을 만큼 미감이 있었고, 외할아버지는 일본 우에노미술대학 서양화과 졸업생이었다. 우송에게 화가의 길은 운명이자 필연이었다.

주말이면 아버지가 형제들을 불러 화제(畵題)를 주고 그림을 그리게 하였는데, 우송에게 일부러 가장 낮은 점수를 주어 실력을 키우게끔 독려하였다. 그림을 좋아하는 아들에게 당시로는 귀한 유화 물감을 사주거나, 아들이 그림을 그리다 놀러 나가면 유화 붓을 깨끗이 빨고 팔레트를 정리해주며 말없는 가르침을 보여주셨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는 혼자 석고 데생을 연습하며 화가의 꿈을 키워나갔다. 예술가에 대한 인식이 낮아 화가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도, 화가를 제대로 이해하던 사람도 없던 시절, 집안의 지원을 받으며 서울대 미대 입학시험을 본다. 한국전쟁이 일어나 정부기관과 학교가 모두 부산으로 피난을 가 있던 어려운 시기였다. 사과도 없이 사과 다섯 개를 그리라는 시험 문제는 지금 같으면 상상력과 구성 실력을 요구하는 수준 높은 문제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석고상이나 제대로 된 종이조차 구하기 마땅치 않았던 당시에는 전쟁 상황에서 피난지의 현실을 보여주는 문제였다. 피난을 가서 머물던 울산에서 부산으로 통학을 하다가 3개월 만에 미국 유학을 가게 된다.

1953년 7월 4일 미국 시애틀

일본 유학도 쉽지 않던 1950년대 초, 미국 유학을 가는 것은 가족과 영영 보지 못할지도 모르는, 전장(戰場)에 나가는 것만큼 위험하고 기약 없는 길이었다. 부산 수영 군용비행장을 떠나 일본 도쿄를 거쳐 일주일 만에 시애틀에 도착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폭신한 카펫이 어색하고, 화려한 네온사인이 낯선 곳이었다. 도착한 날이 미국 독립기념일인줄 몰라 기념 폭죽 소리가 폭격 소리인줄 알고 놀랐던 열아홉 살 청년은 몇 년 뒤 주목받는 젊은 작가로 미국 전역에 이름을 알리게 된다.



1964년 리치몬드 아트센터 '2인의 개인전' 전시장에서

그때까지 동양과 서양의 고전 미술만 공부했던 우송은 샌프란시스코 주립대학에서 새로운 현대 미술을 만난다. 입학 후 첫 미술시간은 손에 물감을 묻혀 그림을 그리는 핑거페인팅(finger painting) 수업이었다. 어린아이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핑거페인팅을 하기에는 자존심이 상해서 가지고 간 스케치북을 선생님에게 보이고 4학년으로 월반을 한다. 말도 잘 통하지 않고, 수업 방식도 모른 채 들어간 수업에서 이전에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추상화를 그리게 된다. 피난시절 아르바이트로 그렸던 군대 포스터의 디자인 개념을 떠올려 나름대로 추상화를 이해하며 새로운 화풍에 익숙해지기 위해 그림 공부에 매달린다. 노력의 결실로 2학년 때 학교 예술제에서 금상을 수상하고, 교수 추천으로 캘리포니아 미술대학(California School of Fine Arts)³⁾에 입학한다.

미국 추상표현주의의 황금시대인 1950년대, 그 한가운데에서 그림을 공부할 수 있던 것은 큰 행운이었다. 캘리포니아 미술대학과 밀스대학, 오하이오 주립대학에서 학위를 따는 한편 볼스화랑(Bolles Gallery)과 전속계약, 잇따른 개인전, 휘트니미술관 ‘젊은 미국 1960(Young America 1960)’ 초대전 등에 참여하면서 활발한 활동을 펼친다.

캘리포니아의 자연과 분위기가 반영된 추상표현주의인 ‘외로운 인물(Lonely Figure)’, ‘캘리포니아의 풍경’ 같은 작품을 발표한다. 1960년대부터는 평생 작품 주제가 되는 ‘만다라’를 선보인다. 당시 미술계는 동양 사상의 영향을 받은 추상표현주의가 중심으로 떠올랐다. 이런 환경에서 동양 삼국의 문화를 가까이 보고 배운 우송은 더욱 우리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동양과 서양의 미술을 연구하고 고민하며, 치열하게 자신의 세계를 만들어 나갔다.



〈운경〉, 1954, 캔버스에 유채, 80x103.5cm

새로운 미술, 새로운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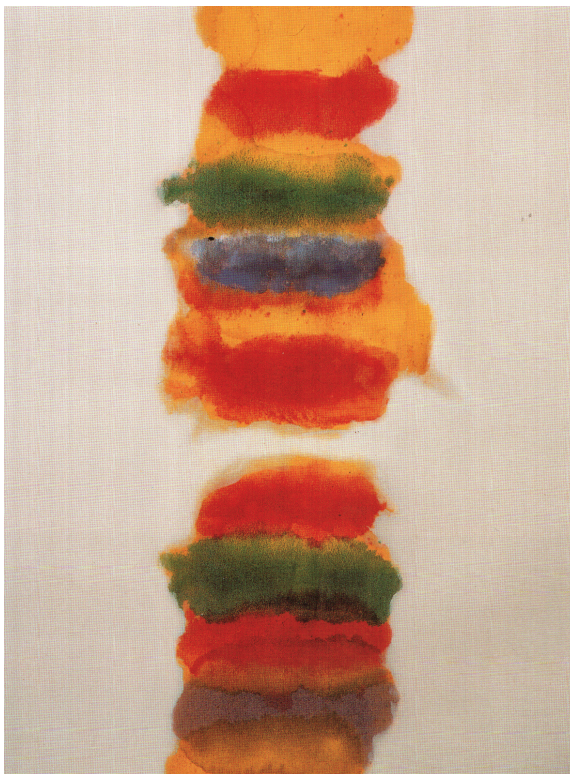
한창 작가로서 유명세를 타던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장남으로서 집안을 돌봐야 하는 책임감으로 귀국을 한다. 귀국 후 1965년 신문회관에서 연 개인전을 시작으로 국내외에서 전시를 개최한다. 우리나라 화단은 미국에서 정식 교육을 받고 인정을 받으며 활동하던 젊은 작가를 주목한다. 미술평론가 이구열*은 ‘색(色)을 통해 동양적인 이미지의 밝고 깊숙한 시(詩)의 세계를 표현해낸다’며 컬러리스트로 불린 우송을 평하였다.

한편 이화여대, 서울대 교수로 처음으로 정규 교과과정에서 새로운 방법으로 추상화를 가르친다. 새로운 미술의 흐름과 이론을 먼저 받아들여 선보이고, 학생들과 답사 여행을 다니며 견문을 넓혀주었다. 1967년 우리나라 화단에서 처음으로 아크릴릭(Acrylic)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고, 이형(異形)캔버스⁴⁾ 작품을 발표한다.

귀국 후 자주 국립박물관에 들러 미술사학자들과 교류를 한다. 당시 미술과에 근무하던 최순우*, 정양모*, 이흥우, 이종석과 미술평론가 이경성*, 이구열 등이 모여 ‘미술당’⁵⁾을 결성한다. 우리 문화재를 찾아 전국을 답사하고, 북한장과 혜곡 최순우의 성북동 집 뒤뜰에 모여 예술과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며 친목을 다진다.

풍류와 멋 속에서 살던 아버지를 보고 자라며 익힌 안목과 문화재를 보존하려는 의지는 보화각을 간송미술관으로 새롭게 탄생시킨다. 당시 국립박물관과 미술사학계에서 활동하며 간송과 교류하던 최순우, 황수영*, 진홍섭*, 김원룡*박사 등 학자들이 발기인이 되어 한국민족미술연구소를 설립하고 부설 기관으로 간송미술관을 둔다. 스스로 힘으로 우리 문화를 지키는 어려운 길을 개척한 아버지 간송을 이어 미술사와 전통문화를 연구하고 알리는 길을 일구기 시작한 것이다.

교수로서 작가로서 한국에서 자리를 잡아갈 무렵 보성중고등학교 이사장인 어머니를 도와 학교 교장을 맡게 된다. 우송의 할아버지 대부터 교육 사업에 뜻을 둔 집안이었기에 학교 운영과 인재 양성은 자신의 길을 잠시라도 접을 만큼 중요한 일이고,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었다. 이후 이십여 년 동안 화가이면서 교육자로 충실한 삶을 산다.



〈색동만다라〉, 1968, Acrylic on Canvas

다시 성북동

성북동은 고향이자 삶의 한 부분이다. 지금은 아스팔트로 덮인 큰 길을 가득 채우며 흐르던 맑은 물, 투명한 물속으로 보이던 바위, 맑은 물에서 마전을 해 푸른 풀밭에 던져놓은 눈이 시리도록 하얀 광목들은 다시 되살리고 싶은 풍경이다.⁶⁾ 하얀모시 두루마기를 바람에 휘날리며 보성고등학교가 있던 언덕으로 넘어가시던 아버지의 모습은 아직도 눈앞에 아른거린다.

“성북동은요, 뭐라고 그럴까, 자연 그대로였어요. 여기서 보면 전부 소나무길 이었고, 마음속에는 있죠, 옛날 성북동 모습이. 성북동과 함께 아버님은 항상 같이 있죠. 또 그렇게 살고 싶고. 이 앞 소나무 밭이 아버님이 여기서 사실 때 걸으시던 산책길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 아버님하고 꼭 똑같이, 아버님 뒷짐 지고 가시면 나도 뒷짐 지고 쫓아다니고 그랬죠. 지금도 아침에 산책하면서 아버님을 늘 생각하며 걸습니다. 작품이나 인생, 삶에서 다 하나일거예요.”

-전성우의 말-

환갑이 되던 해 퇴임을 하고, 다시 자신의 자리인 그림으로 돌아온 우송은 ‘청화만다라’ 연작을 발표한다. 부모님의 유지인 교육의 길을 벗어난 송구스러움으로 흰색과 청색만을 쓴 청화만다라를 그렸다. 미술평론가 이경성은 ‘전성우가 동양의 미를 환원하는 모습으로서 또다시 단순 명쾌하고 신비로운 한국의 예술로 귀의하는 당연한 결과’라며 ‘이조백자의 수준 높은 해탈의 아름다움을 어깨너머로 보아왔고 느끼면서 인간으로 형성되었다.’ 고 하였다.

희수(喜壽)가 된 지금, 캔버스에 색을 되살린다. 컬러리스트로 돌아온 우송의 작품에는 그의 고향 성북동 북단장의 푸른 소나무와 맑은 물빛이 담겨있다.

“작품이란 것은 고향이니까. 항상 고향을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몸에 일체가 되어 있는 것이지요. 어떤 작품을 하든지, 의식적으로 하던 무의식적으로 하던 간에 항상 고향은 (작품 속에) 있죠. 고향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그 작품은 좋은 작품이 아닐 거예요.

고향이라고 하면 어떤 의미에서 심장 같은 것인데, 나에게 있어서 어떤 작품을 하고 싶느냐를 물어볼 때 나는 심장과 같은 작품을 하고 싶다고 해요. 심장이란 것은 뛰고 있는 것을 모르잖아요, 그러나 심장이 멈추는 순간 우리는 죽으니까, 그런 작품을 하고 싶어요.”

-전성우의 말-



성북동 자택 아틀리에에서



〈청화만다라〉

연보

1934년 서울 출생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미국 샌프란시스코 주립대학, 캘리포니아 미술학교 (B.F.A), 밀즈 대학교 대학원(M.F.A), 오하이오 주립대 박사과정 졸업

경력

미국 밀즈대학, 리치몬드 아트센터 부속 미술대학, 이화여자대학교 미술대학,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교수, 보성고등학교 교장 · 재단 이사장 등

수상

샌프란시스코 미술관 공모전, 미국 국회도서관 관화전, 샌프란시스코 예술제 최고명예상 등

개인전

샌프란시스코 루시엔 라보트화랑(1958), 샌프란시스코 볼스화랑(1961~65), 신문회관(1965), 가나화랑(1994), 일본 후쿠오카시미술관(1998), 가나아트센터(2005), 샌프란시스코 북캘리포니아 추상표현주의 재조명전(2010) 등

초대전

‘Young America 60’ (1960), 파리비엔날레(1967), 해화동인전(1977~93), 한국현대판화 40년전(1993) 등

작품소장

국립현대미술관, 호암미술관(한국), 휘트니미술관, 샌프란시스코 현대미술관, 국회도서관, 데이빗 록펠러(미국), 후쿠오카 아시아 미술관(일본) 등

각주

- 1) 북단장(北壇莊): 간송 전형필이 사재를 들여 모은 우리나라 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한 박물관 터로 마련하였다. 위창 오세창 선생이 선잠단지 북쪽에 있는 땅이라는 뜻으로 북단장이란 이름을 지어 주었다. 이곳에 1938년 보화각(葆華閣)이 설립(1966년 간송미술관으로 개칭)되었다.
- 2) 대한민국미술전람회(大韓民國美術展覽會): 1949~1981년 시행된 미술 공모전이다. 간송 전형필 선생은 큰 작품을 그릴 공간이 없어 어려움을 겪던 화가들이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북단장 안 양옥에 마련해 제공하였다. 심산 노수현, 청전 이상범 등 초대 국전 출품 작가들이 이곳에서 작품을 그렸다.
- 3) 캘리포니아 미술대학(California School of Fine Arts): 현재 San Francisco Art Institute이다 (1871년 설립).
- 4) 이형(異形)캔버스: 일반적으로 쓰는 사각형이 아닌 캔버스를 말한다.
- 5) 미술당(美術堂): 해곡 최순우를 당주(堂主)로 이경성, 정양모, 이구열, 이종석, 이흥우, 전성우, 이준구, 김은영, 윤학수, 김익영, 임금희가 모인 친목 모임이다. 40여 년 넘게 아직도 부부동반 모임을 이어가고 있다.
- 6) 물이 흐르던 곳은 삼선교에서 성북동(삼청터널 방향)으로 올라가는 길이고, 광목을 널던 곳은 현재 성북초등학교 마당이다.

먹으로 다섯 가지 색을 표현하다.

노석 신영상 老石 辛永常

1935~

변하지 않는 돌처럼

충남 당진, 노석 신영상의 고향마을은 예부터 검은 돌이 많아 ‘흑석(黑石)’ 이라고 불렸다. 오래된 돌이란 뜻의 호 ‘노석(老石)’ 은 수많은 시간을 견뎌온 흑석마을의 검은 돌이자, 흑석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라 이제는 오랜 세월의 경험을 터득한 신영상 자신이다.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바람이 불어도 본질은 변하지 않는 돌처럼 노석은 인간중심의 흔들림 없는 작품 세계를 펼쳐 보이고 있다. 서양화가였던 아버지는 8.15 해방 이후 서산중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 미술에 대한 인식이 낮던 시절이었지만 화가였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일찍이 그림과 친해질 수 있었다. 학창시절 그림을 곧잘 그린 노석은 그림에 관심이 있던 아버지 친구 분에게 석고 태생을 지도 받으며 미술대학 진학을 준비하였다.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에 입학한 후, 1961년 〈소계(小憩)〉로 대한민국미술전람회(이하 국전)에 입선하였다. 언제나 아들을 묵묵히 지켜봤던 아버지는 국전 등단 소식에 기뻐하시며 소질을 물려받은 아들을 뿌듯해하셨다.



〈조(潮)68〉, 1968, 종이에 수묵채색

대학에 입학하면서 서울로 올라온 노석은 1970년대 초 성북동에 자리를 잡는다. 이전에 살던 복잡한 시내와는 달리 산과 나무, 개울이 있는 성북동에 이끌렸다. 녹음이 우거진 산자락에는 근원 김용준*이 살던 노시산방, 상허 이태준*의 집인 수연산방과 같이 예술가들의 흔적이 남아있었다. 더욱이 훌륭한 문화재와 옛 서화가 보존되어 있는 간송미술관이 가까이에 있어 특별전이 열릴 때면 작품을 감상하며 안목을 높일 수 있었다. 미술대학 동문들이 1970~80년대에 근처로 모이면서 서로 교류하며 지낼 수 있는 것 또한 성북동에 사는 즐거움이 되었다.

큰 느티나무가 있는 성북동 집은 작품을 구상하고 그리는 작업실이자 자연을 느끼게 해주는 휴식처이다. 이층으로 지은 집 마당에는 아이들이 태어날 때마다 기념으로 심은 목련과 후박나무가 세월만큼 나이를 먹으며 어우러져 있다. 2층 작업실에서 그림을 그리다 보면 직박구리가 나무에 앉아 지저귀곤 했다.



아틀리에에서

먹으로 골격을 이루다

화장을 하지 않은 얼굴에 순백의 소복을 입은 여인처럼 꾸미지 않은 아름다움을 가진 한국화의 매력에 빠진 노석은 동양화를 전공하였다. 졸업 후에는 국전에 잇달아 작품을 출품한다. 초기에는 사실적인 작품이었으나, 1970년대 들어서 점차 비구상적인 표현이 전개된다. 형태를 일그러트리거나 과장, 축소하여 눈으로 보이는 객관적인 형태를 그대로 표현하지 않고, 심중에 있는 형태를 그림으로 나타냈다.

다양한 표현기법의 연구를 거듭한 결과 그림을 그리는 도구를 선택하는 폭도 넓어졌다. 처음에는 롤러를 썼다. 동양화와 롤러는 어울리지 않을 것 같지만 붓을 쓰는 것과는 또 다른 느낌과 작품을 그려낼 수 있었다.

그 다음에는 붓에 먹물을 묻혀 뿌리고, 뿌려진 먹물에서 형태를 잡아 작품을 완성하였다. 먹색의 비구상적인 형체는 문지르고, 뿌리고, 번지고, 깨트리는 방법을 통해 표현하였다. 어린시절 보았던 어촌가족의 모습을 뿌리기 기법으로 표현한 〈조(潮)〉(1968)는 묵선을 최소화하면서도 다양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준다.

“외적 시계(視界) 보다는 내면적 관조가 중요하다는 점을 부각하려 했지요. 그러다보니 사실적이기 보다는 다분히 주관적이고 서정적인 분위기가 감돌게 되었지요.”

-신영상의 말1-



〈울9917〉, 1999, 마지에 수묵, 204x142cm

노석은 형상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 사실적인 윤곽을 넘어 사실성 보다 마음의 눈으로 통찰하는 것을 중시하였다. 물체의 고유한性情(性情)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더 의미를 둔 것이다.²⁾

먹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그림에 담은 노석은 의도적으로 필선을 자제하고, 여백을 두었다. 두껍게 덧바르는 일본화풍이나 화려하게 꾸민 중국화풍 보다 담백한 아름다움의 먹색(墨色)을 예찬한다. 묵(墨)만으로도 오채(五彩)·과랑, 노랑, 빨강, 하양, 검정의 다섯 가지 색을 표현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문(門)과 율(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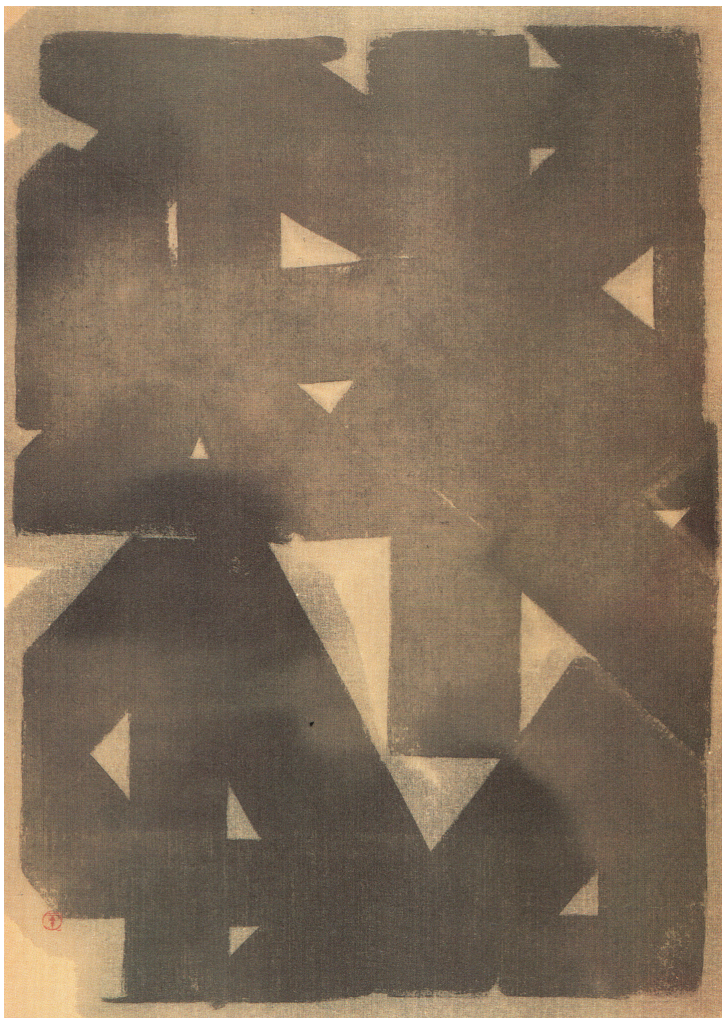
1970년대 중후반부터는 해·달·별·구름과 같이 우주와 자연의 질서와 흐름을 그림에 담아내고자 하였다. 또한 한옥의 문살을 모티브로 한 ‘문살’ 시리즈는 전통적인 화법에서 벗어나 자신의 세계를 일구어 나가는 노석의 작품 흐름을 잘 보여준다. 전통 한옥의 창살구조는 한국인의 자연관과 시공간이 담겨있는 소우주이다. 노석은 ‘문의 세계는 삼라만상의 존재를 주관적 심상으로 투영하게 하는 매개체’라고 하였다. 단힘과 단절을 의미하는 경계의 문이 아니라 열림과 만남을 의미하는 매개체로서 문의 의미를 발견하고, 그림에 담아내었다.

〈정오(正午)〉를 시작으로 창살이 엇갈린 모양을 그려내는 작업은 비구상적인 형체를 하나의 이미지로 표현하던 이전 작업과 차이를 보인다. 단순하고 반복적인 창살 구조에서도 무한하고 풍부한 이미지를 발견하고 재해석하였다. 창살의 교차구조는 인생의 생성과 소멸이 끝없이 흐르는 만물의 흐름과 같았다.

1990년대 이후 발표하고 있는 〈율(律)〉시리즈에서는 다양한 소재 위에 그림을 그린다. 화선지·닥지·마대·옥양목(玉洋木) 등 독특한 질감을 이용하여 각기 다른 느낌을 나타낸다. 같은 한지라도 삼합지³⁾를 사용할 때면 나이프나 플라스틱 자로 먹의 수분을 밀어내는 기법을 쓰고, 먹이 잘 번지는 창호지에 그릴 때는 다양한 번짐을 통해 어둠과 밝음을 표현한다.

35년 동안 서울대 미대 교수로 제자를 길러내며 노석은 제자들에게 논어의 ‘회사후소(繪事後素)’의 정신을 가르쳤다. ‘바탕을 먼저 손질 한 후에 색을 칠해야 한다’는 이 말은 본질이 있는 후에 꾸밈이 있다는 뜻이다. 즉 사람은 바른 인격이 우선이고, 작품은 화가의 본질을 반영한다는 가르침을 준 것이다. 또한 구태의연한 작품과 정신으로는 제자들을 가르칠 수 없음을 알고 항상 노력하였다.

노석은 자연의 끊임 없는 생성과 소멸의 순환처럼, 안과 밖을 이어주는 매개체인 문처럼, 그림 속에서 살아왔다. 정년퇴임 후 작품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된 지금이 어찌면 노석의 세계를 화폭 위에 구현하는 또 다른 시작점일 것이다.



〈울9912〉, 1999, 마지에 수묵, 210x145cm

연보

1935년 충남 당진 출생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졸업

경력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미술회관 운영위원, 대한민국 미술대전 운영위원, 한국화회 회장 ·

고문, 문교부 교육과정심사위원, 서울대 미술대학 교수 · 명예교수

수상

제2회 신인예술상 문교부(1963), 제13회 국전 문교부 장관상 문교부(1964), 황조근정훈장(2001) 등

전시

뉴텔리 트리엔날레 국제전(1971), 도쿄 아시아 현대미술전(1974), 뉴욕 알파인갤러리 신영상전(1988), 동경 베세토 국제회화전(일본, 1998), 신영상 작품전(2000) 등

작품소장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서울대학교미술관(한국), 덴버미술관(미국) 등

각주

- 1) 신영상, 「문살을 주제로 한 작품연구-교창살의 이미지에 의한 상징적 변용을 중심으로」, 『조형』, 서울대 미대, 1986, 1쪽.
- 2) 김남수, 「신영상-인간중심의 정신, 조형언어로 표출」, 『미술세계』, 1989, 1.
- 3) 삼합지: 종이를 만들 때 금방 떠낸 것을 여러 장 쌓아 압축하여 물기를 없앤 뒤 한 장씩 떼어 말리는데, 세 장을 한꺼번에 떼어 말린 것을 삼합지라고 한다. 삼합지는 한 장짜리 종이에 비해 튼튼하다(배재영, 『동양화란 어떤 그림인가』, 열화당, 2002, 104쪽).

가물소, 진리를 향해가는 걸음

우현 송영방 牛玄 宋榮邦

1936~

자연을 그리고 일상을 담다

여유롭고 정감 있는 웃음이 자신의 작품과 닮은 화가 우현 송영방은 경기도 화성에서 태어났다. 부모님은 늦은 나이에 얻은 귀한 외아들을 서울 혜화국민학교로 유학을 보냈다. 그러나 곧 일어난 2차 대전의 영향으로 사회가 불안정하게 되자 어린 아들이 걱정 되어 다시 고향에 있는 화수국민학교로 전학시켰다. 학교에서는 미술시간에 그린 그림이 곧잘 뽑혀 교실 뒤 게시판에 걸려 있었다. 수원에서 열린 미술전람회에서 상을 받고는 어린 마음에 화가가 무언지도 모르고,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되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어릴 때 잡지 『소년』에 이원수*, 박화목* 같은 아동문학가가 쓴 글의 삽화나 일본 책에 있는 정물을 따라 그리기도 했다. 집안 아이가 그림을 좋아한다고 하니, 서울에 사는 친척들이 올 때면 크레용, 도화연필을 사다줬다. 한학자인 아버지는 명절 때나 기제사를 지낼 때마다 아들에게 지방(紙榜)을 쓰게 했는데, 그러다보니 자연스레 글씨 쓰는 방법을 터득하게 되었고 먹과 친해졌다.

서울 용산중학교를 다니던 시절에는 한국전쟁이 일어나 사촌형과 둘이서 부산으로 피난을 갔다. 아는 사람도 없고, 돈도 없는 부산 생활, 드럼통과 나무를 구해 호떡장사를 시작했다. 밀가루 반죽을 하고, 미군부대에서 사온 잼을 넣고 만들어 판 호떡은 재료를 많이 쓴 탓에 장사는 됐지만 수익이 적었다. 부모님 품에서 벗어난 객지 생활은 힘들기만 했고, 얼마간을 피난지에서 보낸 뒤 천신만고 끝에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9.28 서울 수복 이후에는 다시 용산중학교에 복학을 했다.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등록금과 용돈을 벌어가며 학교를 다녀야 했다. 그림 소질을 살려 용산중학교 동기 신동우*의 소개로 출판사에서 아르바이트로 삽화를 그리기 시작하였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진로를 고민하다 어릴 때부터 꿈꾸던 화가가 되기 위해 서울대 미술대학 회화과에 입학하였다. 학교에서는 서양화와 동양화를 모두 배울 수 있었다. 어린시절 아버지 옆에서 먹을 갈며 맡은 묵향이 코끝에 맴돌아서일까, 삼학년때 전공을 선택하는 갈림길에서 우현은 동양화를 선택한다.

서울대학교에서는 우리나라 화단을 이끄는 심산 노수현*, 월전 장우성*, 산정 서세옥 선생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었다. 우현은 새로운 동양화를 모색하는 서세옥 선생님을 중심으로 결성된 ‘묵림회’와 동문들이 모여 만든 ‘한국화회’에 참여한다.

단체전이나 대한민국미술전람회(이하 국전)에 초대작가로 꾸준한 활동을 했지만, 다른 동기들과는 다르게 졸업 후 한참만인 1984년에 첫 개인전을 연다. 이후 국내외에서 꾸준하게 작품활동을 이어 나갔고, 국전이나 여러 미술제의 심사위원을 지냈다. 이외에도 동국대 미술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동국대 컨벤션센터에 대규모 불화를 완성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였다.



〈지골(地骨)〉, 2000, 69x90cm

매석취호(梅石醉豪), 돌과 매화를 미치도록 좋아하다.

성북동 꼭대기 판잣집. 노량진 누님 댁에 살다 독립을 한 뒤로 여러 차례 집을 옮겨다니다 성북동으로 이사를 왔다. 지금 살고 있는 성북동 집은 1960년대 중반 터를 잡고 지은 것이다. 동남향집인 이곳은 주변으로 소나무가 있어 마음에 들었다.

스승인 산정 서세옥 선생과 동문 이석 임송희, 노석 신영상, 백계 정탁영* 등 여러 지인들이 성북동으로 이사를 오게 되어 가까이에서 함께 교류할 수 있었다. 또 평소 글을 읽고 존경하게 된 미술사학자 혜곡 최순우* 선생도 마침 가까이로 이사를 와 인사를 다니곤 했다. 혜곡 선생댁에 가보면 석물(石物)들이 제자리에 놓여있고, 자연스러운 뒤뜰이 멋스러웠다. 겨울에도 눈 속에 꽃보다 아름다운 빨간 열매를 맺는 산사나무를 기르는 것을 보고 그 영향으로 산열매가 달리는 야생나무를 좋아하게 되었다.



석물들이 어울어진 성북동 자택 마당에서

우현이 사는 집 마당에는 젊은 시절부터 모은 석물이 줄지어 있다. 수석을 한창 모을 때는 친구들과 함께 돌을 찾으러 단양이나 충주까지 가곤 했다. 한때는 그림 그리는 것만큼 수석에 열중하였다. 수석은 지나치게 매끄럽지도, 거칠지도 않아야 하고, 형태는 괴이하고 골격이 뚜렷하며 빈 공간이 있는 것을 모았다. 바람에 갈리고 비에 씻긴 돌들은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자연이 보여주는 추상작품이다.

화로의 불씨를 꺼트리지 않기 위해 눌러놓는 돌거북을 얼마간 돈을 들여 사온 적도 있다. 1980년대 초반 인사동에 화실이 있을 때 청계천으로 산책을 다니곤 했는데, 우연히 마음에 드는 석물을 만난 것이다. 시골에서 올라온 할아버지가 가지고 온 돌거북은 통방울 눈에 순진한 인상으로 이끼가 끼어 있어 꽤 운치가 있는 물건이었다.

우현은 수석을 즐겨하면서도 자신의 수석을 마음에 들어 하는 지인이 있으면 아낌없이 선물하기도 하였다. 돌을 좋아하는 친구들과 돌 모으는 이야기를 하며 취미를 즐겼다. 그로부터 돌과 대화를 미치도록 좋아한다고 하여 집 이름을 ‘매석취호’라 하였다. 또는 돌은 물기가 있을 때 더욱 돋보인다고 하여 ‘꽃에 물을 주고 돌을 물로 씻는 집(관화세석재, 灌花洗石齋)’이라고도 이름을 붙였다.

우현은 성북동에 살면서 특별한 인연을 맺기도 하였다. 대학 졸업 후에 연재 소설이나 책에 삽화를 그리는 일을 하며 여러 사람을 만났는데, 언젠가 하루는 그림이 마음에 든다며 법정*스님에게서 전화가 왔다. 한 잡지 표지에 실린 그림으로 3월호 표지라서 제비를 그린 것이었다. 그때는 잡지나 신문에 들어가는 삽화를 작품이라고 여기는 인식이 없어 출판사에서 간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그림이 엉망이 되어 있었다. 그림을 쓸 수 없어 다시 그려 전했고, 표지화가 맺어준 법정스님과 인연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법정스님은 책을 낼 때나 회주(會主)로 있는 단체에서 발간물을 낼 때도 우현에게 그림을 부탁했다.¹⁾ 또, 자신이 살고 있는 곳에 노루가 와서 물을 마시는데 그 풍경을 그림으로 보고 싶다고 하여 우현이 그려 보였더니 상상한 풍경이라며 좋아하였다.

삽화는 구도를 잡는 감각을 키우고, 대상을 포착해서 빠르게 그려내는 연습에 도움이 됐다.²⁾ 시골에서 보낸 어린시절은 산수나 동물 등 훨씬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다. 우현은 산수, 화조, 동물, 인물 등 여러 가지 소재를 자유자재로 화폭에 담는다. 지나가는 개나 고양이, 새 따위를 보면 몸짓이나 표정에서 특징을 금방 잡아 스케치를 해둔다. 구상, 추상을 아울러 폭넓게 대상에 접근하고 관찰하는 습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평화로운 강산〉, 2009, 74x141cm

나를 찾는 걸음

우현은 동양화 전통을 이으면서 범고창신(法古創新), 즉 자기다움의 길을 찾아가라는 말을 깊이 새기고 끊임없이 예술과 나를 찾는 배움의 자세를 잃지 않고자 한다. 완성과 끝이 없는 길 위에서 자신의 호 ‘우현’ 처럼 가물가물하게 본성을 찾는 걸음을 쉽 없이 내딛는다.

“심우(尋牛)라는 것은 불교의 본성의 진리를 찾고, 찾았다는 그것마저 잊는다는 것이지요. 현(玄)은 도덕경에 나오는 현지우현중묘지문(玄之又玄衆妙之門), 현이란 가물가물하고 아득한 진리 그 자체를 찾는다는 것이고, 내가 아직 찾지 못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현이라 지었어요. 본성(本性)찾는다는 말이죠. 내 호처럼 그 아물아물한 진리로 내가 나간다고 해도 진리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근사치만 따라간다고 해도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눈에 흠이 들어갈 때까지 열심히 해서 그 근접하게 가면 다행이고, 대성공이에요, 그걸 내가 완성하겠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송영방의 말-

잘 알려진 ‘승무’ 나 산수화, 많이 발표되지 않은 추상화에서도 드러나는 심상은 먹과 색의 농담만으로 표현한 담담한 아름다움과 평안함이다. 작가의 느낌이 단숨에 드러나는 스케치나 추상화에도 꾸미지 않은 직관과 ‘형태를 구하되 형태를 구하지 않는다’는 동양화의 정신이 담겨 있다.

다시 태어나도 삶의 자유로움과 진리를 향해 가는 화가를 선택하겠다는 우현. 자연과 세상을 그림으로 초대하는 우현이 앞으로 보여줄 작품에서 우리는 또 어떤 진리와 제2의 본성을 깨닫게 될까. ‘가물소(𡇗물소)’의 발걸음을 쫓아가 보자.



〈승무〉, 2007, 47x100cm



성북동 아틀리에에서

연보

1936년 경기 화성 출생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화과 졸업

경력

동국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 교수 · 예술대 학장, 국전 · 대한민국미술대전 · 동아미술대전 심사위원 등

수상

제9회 국전 특선, 서울시 문화상, 문화예술상 미술상

전시

뉴델리 트리엔날레(인도, 1972), 대만역사박물관(1978), 아시아 현대미술전(일본, 1980), 초청한국현대미술 초대전(이태리, 1982), 국립현대미술관(1987, 1988), 현대화랑(1984, 1988, 2000), 예술의전당(1997, 1999, 2000) 등

작품소장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한국), 대영박물관 한국관(영국), 샌프란시스코 동양박물관(미국) 등

각주

- 1) 우현은 법정스님 수상집 『텃빈 총만』과 『물소리 바람소리』의 표지를 그렸다. (사)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는 길상사를 근본도량으로 활동하는 단체로 법정스님이 창립하였다.
- 2) 우현이 그린 삽화로 동아일보 연재소설 『초원의 향기』(김성한 글, 1983), 『난 할아버지가 좋아요』(김진락, 2003),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신달자, 2010) 등이 있다.

깨끗한 마음(心井)으로, 정법(正法)의 산수화를 표현하다.

이석 임송희 以石 林頌羲

1938~

성직자를 꿈꾸던 여덟 번째 막내

바닥까지 흰히 비치는 깨끗한 물이 흐르는 고향. 길을 가다가도 맑은 물에 입을 대고 물을 마시고, 첩병 들어가 먹을 감았다. 충북 괴산군 증평의 고향풍경이 가슴 속에 오래도록 간직되어서인지 이석 임송희의 그림에는 고향냄새가 난다. 이석은 독립운동가이자 교육자인 임창무(林昌茂)* 선생의 여덟 번째 막내아들로 태어났다. 아버지는 예술가의 자질을 가진 분이였다. 호랑이를 그리면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그림을 잘 그리셨고, 친구인 현제명* 선생에게 바이올린을 배워 연주하기도 했다. 그 소질을 가장 많이 닮은 막내아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지 못한 채 독립운동을 할 때 투옥되었던 후유증으로 이석이 다섯 살 때 돌아가셨다.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 열심히 예배당을 다니던 유년시절에는 성직자가 되고 싶었다. 마을에 예배당이 없을 때 청주에서 선교사들이 오면 목재상을 하던 이석의 집에 와서 예배를 드렸다. 서커스가 오면 바깥마당에서 공연을 할



〈외금강 만물상〉, 2001, 한지에 먹 담채, 210x149cm

정도로 큰 집이었다. 두 살 터울인 형과 자주 개울에서 물고기를 잡고, 마음껏 들녘에서 뛰어놀며 어머니와 형제들의 보살핌 속에 어려움 없는 어린시절을 보냈다.

학창시절에는 일주일 내내 미술시간을 기다렸다. 시간표에 미술시간이 일주일 만에 한 번이면 그렇게 서운할 수 없었고, 일주일에 두 번이면 그렇게 기분 좋을 수 없었다. 잡지에 나온 사진을 보고 혼자 따라 그려보기도 했다. 하루는 신방(訊訪)¹⁾을 나온 목사님이 간디를 그려 붙여놓은 것을 보고 그림 실력에 놀라 미술대학에 가길 권유하였다.

시골에는 데생용 석고상도 없었고 미대진학에 대한 정보도 부족했다. 그림을 좋아하고 그림에 재능이 있던 동생이 화가가 될 수 있도록 형들은 응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마침 서울 창덕여고 미술 선생이었던 둘째 형 친구를 소개 받아 서울로 올라온다. 창덕여고 미술부의 청일점. 여학우들 사이에서 고

개도 들지 못했던 순박한 시골소년이었지만 그림 실력은 금세 두각을 나타냈다. 서울 미대 입학시험 날 석고상이 놓여있을 줄 알았던 자리에는 젊은 여성모델이 앉아있었다.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당황했지만 그동안 연습한 데생 실력을 바탕으로 시험을 치렀다. 조마조마하게 기다린 합격자 발표날, 회화과 명단에는 이석의 수험번호가 있었다.

1, 2학년 때는 동양화와 서양화를 함께 배우다가 3학년이 될 때 전공을 선택하였다. 학창시절부터 서양화를 중심으로 미술교육을 받았던 터라 많은 학생들이 서양화를 전공으로 정하였다. 그러나 이석은 자연을 벗 삼아 자라서 인지 기쁨으로 갠 물감을 사용하는 유화보다 담백하고 투명한 느낌의 동양화가 더욱 친숙했다. 그동안 수업시간에 이석을 눈여겨보던 한 교수님은 “자네는 동양화가 체질에 맞네.”라며 그림 솜씨를 칭찬하기도 했다.

동양화를 전공으로 선택하여 가르침을 받던 재학시절, 한번은 자신만의 소재를 찾아 그림을 그려오라는 수업과제가 주어졌다. 청량리에서 대학로에 있었던 서울대 미대로 통학하던 이석은 늘 타고 다니던 전철을 타는 대신 학교까지 걸어가며 소재를 찾았다.

“길을 가는데, 소녀 오빠 같아요. 요만한 애가 하모니카를 불고, 옆에서 사과를 들고 동생이 요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바로 이거다!’ 했지. 지금 생각하니 동양화에서 소재가 바뀐 거예요. 옛날 그림에는 전부 피리를 부는데, 입으로 부는 같은 피리이지만 식물성에서 금속재질의 하모니카로 바뀐 것이죠. 잠바 같은데 자크[지페]도 있고, 뜬 모자도 쓰고 있고. 지금 생각하니까 6.25 참상 이후 너무 비참한 서정이 표현돼 있어요.”

-임송희의 말-

이렇게 그린 그림이 〈하모니카 소년〉이다. 그 당시 1950년대 동양화에서 잘 다루지 않던 새롭고 참신한 소재의 그림이었다.

1959년에는 서울미대를 중심으로 ‘목림회’가 출범하였다. 목림회는 전통회화의 통념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 시대적 성격을 반영하려는 새로운 움직임이었다. 이석은 군대 제대 이후, 목림회에 참여하여 〈소녀〉와 〈소년〉을 출품하였다. 과묵²⁾작품인 〈소녀〉는 소박한 소녀의 모습을 담고 있고, 〈소년〉은 벌거숭이 어린아이가 큰 돌을 메고 가는 모습을 담고 있다. 목림회가 해체된 이후에는 새로운 동양미술을 추구하고자 한국화회³⁾가 출범하였다. 창립멤버였던 이석은 ‘한국화회’라는 명칭을 짓고, 세 차례에 걸쳐 한국화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성북동 자택 아틀리에에서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그리고, 기운을 담는다.

힘들고 긴 자신만의 수업기를 거쳐 다양한 기법을 구사하는 화가가 될 수 있었다. 이석은 붓을 쥐는 만큼 운필(運筆)하는데 지장이 생긴다고 강조한다. 작품활동 시간이 부족했던 교수재직 시절에도 이른 새벽에 일어나 그림을 그렸다. 실경산수나 과목, 문인화, 추상화를 모두 그려 보며 고민을 거듭하고 자신만의 세계를 찾아나갔다.

준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진지한 탐구야말로 자신의 조형어법으로 산수를 임리(淋漓)하는 것이 아니라 산수가 산수 그 자체의 온당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해 주는 조형의 중핵이기도 하다. 그리 하여 이 무렵 나의 실경산수 작업은 주로 실제의 산형에 맞는 준법을 찾아 조형화시키는 준법의 탐구로 이어져갔다. 거기서 나는 강원도 설악산의 준법이 다르고, 서울 북한산의 준법이 다르며, 충청도 단양 화양동의 준법이 다시 다름을 실증적으로 체험하였다.⁴⁾

2002년 2월 한중수교 10주년 기념으로 중국 남경박물관에서는 이석의 초대 전시회가 열렸다. 사실적인 실경산수, 자연 대상을 자유자재로 표현한 과목산수(破墨山水) 외에도 문인화, 추상화를 모두 수준 높게 소화하는 작가로 인정을 받은 것이다.

가로 8m70cm, 세로 1m나 되는 대작, 〈장강〉은 중국 경향(京杭) 대운하를 따라 소주에서 항주까지 배를 타고 가며 본 장관을 담은 작품이다. 기동선 한 척이 여러 척의 통통배를 길게 끌고 가는 모습이 마치 강위를 달리는 열차처럼 보인다.



〈우후(雨後)〉, 2010, 한지에 먹 수묵담채, 140x70cm





〈장강(長江)〉, 2000, 한지에 먹 수묵담채, 870x100cm

이석은 자연의 기(氣), 자연과 마주쳤을 때 두근거리는 즐거움을 마음에 간직하고, 형태를 기억해 그 기운을 그림에 담는다. “만리의 길을 걷지 않고 만권의 책을 읽지 않으면 화조(畵祖)가 되거저 하더라도 그것을 얻을 수 있겠는가?” 라는 명나라 동기창(董其昌)의 말처럼 늘 견문을 넓히고, 그것을 바탕으로 폭넓고 깊이 있는 그림을 그리려고 노력한다.

취석헌(醉石軒)

돌에 대한 지극한 관심은 ‘돌로써’라는 뜻의 호 이석(以石)에서도 드러난다. 대학을 졸업하고 호가 없을 때 만난 한 학자가 동양화가인 호가 있어야 한다고 좋아하는 것을 생각해 오라고 하였다. 돌을 좋아하여 돌이 들어가는 글자를 모두 써서 보여드리니, 그 모든 것을 포함하는 이석을 호로 지어주었다.

이석은 1978년 성북동에 집을 짓고 당호를 ‘취석헌(醉石軒)’이라 붙였다. ‘돌이 좋아 그 기운에 취했다’는 의미이다. 마당에는 수집한 석물들이 놓여 있다. 젊은 시절 돌을 찾아다니며 얻은 괴석, 석함(石函), 석등 등은 운반 장비가 없던 시절 여덟 명이 사흘에 걸쳐 옮긴 것이다. 마당 끝에 커다랗게 누워 있는 자연석에는 ‘취석(醉石)’ 두 글자가 새겨져 있다.

이곳에서 이석은 여전히 젊은 시절의 생활습관처럼 새벽이면 자신만의 시간을 가진다. 바위와 폭포, 비 온 뒤 운무(雲霧)가 드리운 계곡을 파묵으로 그리며 자연 속으로 들어간다. 그림 속 바위에 앉아있는 인물처럼 평안함과 산수를 즐길 줄 아는 이석은 취석헌에서 자연과 인간을 그림에 담는다.



취석헌

연보

1938년 충북 증평 출생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화과 졸업

경력

덕성여자대학교 동양화전공 교수, 덕성여자대학교 예술대학 학장 역임, 현 덕성여자대학교 명예교수, 중국 남경박물관 고문, 한국미술협회 고문, 한국화회 회장 등

수상

전국미술지도상, 제1회 겸재 미술상 수상

전시

개인전 7회, 외국초대전(중국, 미국, 동남아, 일본, 호주 등) 16회, 국내 초대전 450여 회, 임송희 남경박물관 초대전(한중수교십주년기념) 등

작품소장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한국), 남경박물관(중국) 등

각주

- 1) 신방(訊訪): 어떤 사람을 찾아가서 만난다는 뜻으로 여기서는 성직자가 신자들을 찾아가는 것을 말한다.
- 2) 파묵(破墨): 수묵화의 기본적인 화법으로 선으로 대체적인 형태를 묘사 한 뒤 면에 먹물을 겹치든가 농담의 효과를 내는 방법으로, 입체감이나 생동감을 잘 드러낸다.
- 3) 한국화회: 1967년 5월 5일 제1회 창립전(신문회관화랑)을 개최하면서 ‘한국화’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창립멤버에는 신영상, 송영방, 임송희, 이규선 등이 있다.
- 4) 임송희, 〈산수의 물성을 넘어선 영성의 추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작가노트.

색색 실을 꼬아 꽃을 피워내다

송리 김은영 松里 金銀暎

1942~

빈 쿡각지를 엮어 방석을 만들던 아이

어린시절 아버지를 따라 인사동 골동품점에 가면 나비 모양, 국화 모양 매듭이 달린 노리개가 있었다. 지금은 구하기 힘든 귀한 노리개이지만 그때는 그 가치를 몰라 골동상들이 어린 손님에게 선물로 주곤 하였다. 고운 색실을 엮어 만든 여러 가지 모양의 매듭을 보면 ‘어떻게 만들었을까?’라는 질문이 머릿속에 맴돌았다. 빈 쿡각지를 가로세로로 엮어 방석을 만들며 소꿉장난을 하던 기억이 매듭에 더욱 관심을 갖게 했을지도 모른다.

아버지는 <와사등>과 <설야>라는 시로 유명한 김광균*이다. 전통 문화에 관심이 깊고, 골동품을 모으는 취미가 있던 아버지는 백자항아리를 새로 구해 가져오는 날이면 딸에게 깨끗하게 씻어오라는 심부름을 시켰다. 큰 대야에 빨랫비누를 깎아넣고 끓인 물에 항아리를 삶아 깨끗한 물에 헹궈놓으면 하얗고 뽀얀 백자항아리 색이 드러났다. 집에는 도자기와 그림, 글씨들이 곳곳에 놓여 있었고, 김인승*, 진홍섭* 같은 개성 출신 화가와 학자가 오갔다.

아버지를 따라 시인이 되려던 꿈은 대학입시를 3개월 앞두고 전혀 다른 방향을 향한다. 스스로 ‘개성개량종’ 이라고 말씀하셨던 아버지는 새로운 학문에 관심이 많고 진취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였다. 어느 날 이화여대에 실내장식 전공이 생긴다는 신문 광고를 본 아버지는 미술대학 진학을 권유하였다. 서울대나 이화여대 미술대학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성적이었지만 미술 실기시험까지 준비하기에는 짧은 시간이었다. 짧은 기간 동안 석고 테생을 배워 입시 준비를 한 끝에 실내장식 전공이 있는 생활미술과에 입학하였다. 당시 실내장식 전공자도, 실내장식을 가르칠 수 있는 교수도 제대로 없을 때였다. 그렇지만 미술대학에서 배운 실기와 이론수업은 매듭 작품을 구상하는 안목과 감각을 키우는데 그 바탕이 되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유학을 준비하던 때, 친정집에서 같이 살던 사촌동생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충격을 받아 교수가 되어 학생들을 가르치려는 꿈을 접게 되었다. 이때 마침 집안 고모의 소개로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화가 전성우와 경복궁 대한민국미술전람회 전시장에서 처음 만난다. 혼담이 오가고, 몇 달 만에 약혼을 하였다.



성북동 자택

시아버지인 간송 전형필* 선생은 몇 해 전 돌아가셨지만 경운동 친정 앞집에 이승만 대통령의 주치의를 지낸 김승현 선생을 만나러 오시던 모습을 멀리서 몇 번 본 적이 있다. 그때는 우리나라에서 골동품을 가장 많이 가진 수집가로 소개된 분이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그댕 만며느리가 된 것이다. 친정아버지도 글씨나 그림을 모으는 취미가 있고, 당시 김환기*나 이대원* 같은 서양화가들과 친분이 있어 집안 분위기는 친정과 시택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

송리는 초등학교 때 방학이면 성북동 이모댁에 놀러왔다. 숲이 우거진 성북동에 오면 꿩이 후두둑거리며 날아다니고 잘생긴 바위 위로 물이 흘렀다. 지금 북단장에 앉아 어려서 여름방학에 보았던 옛 성북동 마전터 모습을 생각하면 성북동과 인연은 그때부터였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성북동 집은 약혼식 후 짓기 시작해 일 년 가까이 공사를 했다. 지금 같으면 금방 지을 수 있는 집일 텐데 그때(1966년)는 알맞은 자재를 구하기도 어렵고 건축기술도 좋지 않아 어렵게 지었다. 거실 천장부터 바닥까지 오는 통유리를 설치하고 싶어도 공장에서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크기는 그 절반밖에 되지 않았다. 1967년 4월 혼인을 하고, 완공된 집에서 성북동 생활을 시작한다.

새로운 삶, 매듭으로 엮다

유학은 포기하였지만 계속 공부를 하고 싶던 때 당시 국립박물관 미술과장이던 최순우* 선생에게 김희진* 선생을 소개 받아 매듭을 배운다. 결혼을 하고 며느리로, 아내로, 어머니로 바쁜 생활을 하는 틈틈이 매듭 작품을 만들었다. 한창 작품을 할 때는 집안일을 마치고 새벽 3시까지 다회(多繪)¹⁾를 치고 매듭을 짜는 일에 매달렸다. 시어머님을 모시고, 사남매를 낳아 키우며 하루를 쪼개고 쪼개어 남들보다 더 긴 하루를 살았다. 전업작가로 활동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전승공예대전에서 특별상(5회),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며 이름을 알린다.



실을 짜고 있는 송리 김은영



〈대삼작 낙지발술 노리개〉, 매듭길이 42cm, 술길이 21cm
3대째 집안에서 내려오는 노리개로, 시어머님께 물려받았다.

1977년 무렵부터 매듭을 배우고 싶어 하는 학생들을 몇 명씩 모아 집에서 수업을 했다. 학창시절부터 가르치는 것을 좋아해 형편이 어려워 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다른 집 가사 일을 돕는 아이들을 모아놓고 우리나라 역사와 국어를 알려주기도 했다. 매듭도 능력이나 조건을 갖춘 사람보다도 배우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가르쳤다.

늘 책을 손에서 놓지 말고, 책 속에서 인생을 배우라는 아버지 말씀에 용기를 얻어 마흔 여섯이라는 늦은 나이에 대학원에 들어갔다. 자신보다 나이가 적은 교수, 대학교를 갓 졸업한 동기들, 예전과는 다른 학교 분위기,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은 대학원 생활이었다. 한창 공부할 나이에는 한두 번이면 익히고 외우던 내용도 밤을 새워가며 여덟 번, 아홉 번을 봐야 했다. 나태해지거나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아버지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다시 노력을 계속하였다. 매듭을 시작하고 모은 자료와 대학원에서 공부한 내용으로 논문 「우리나라 매듭의 역사」를 발표하고, 졸업 후에는 대학강단에서 학생을 가르치며 교수의 꿈을 이룬다.

1996년에는 그간에 쌓은 노력과 실력을 인정받아 서울시 무형문화재 제13호 매듭장으로 지정받는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매듭장 지정이었다. 매듭장으로 지정되며 그만큼 사회에 책무를 느껴 전통문화를 잇는 제자를 키우고 매듭을 보급하는데 힘쓴다.

2002년부터 자신과 제자들의 작품을 모아 ‘김은영전승매듭연구회’ 회원전을 열었다. ‘매듭과 노리개’, ‘매듭과 주머니’, ‘매듭과 현대의상’과 같은 다양한 주제를 통해 매듭을 옛 것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매듭의 여러 쓰임을 소개하였다. 웨딩드레스를 장식한 매듭은 어느 보석보다도 아름다워 많은 이들이 감탄을 할 정도였다.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서양복식인 드레스와 우리 전통 매듭의 새롭고 신선한 만남이었다.

한국의 전통매듭을 이어나가는 길

작은 매듭작품 하나에도 천연재료나 인공염료로 실을 염색해서 말리고, 다회를 치고 술을 꼬는 섬세하고 많은 노력이 들어간다. 자연스럽게 색을 염색하기도 어렵지만 서로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색을 찾기도 쉽지 않다. 색을 고르면 어떤 매듭을 택해서 엮을 것인지, 장신구는 무엇을 쓸지를 고려해야 한다. 매듭은 생활용품 곳곳에 쓰였는데, 주머니, 합죽선에 장식하던 선추(扇錘), 안경집, 도포끈 따위에 매듭이 빠지지 않았고, 의례 용품, 신부 가마나 악기 장식으로도 쓰였다.

송리는 복식연구가 석주선* 선생의 조언으로 의궤(儀軌)나 풍속화 등 기록과 유물로 남아있는 옛 매듭을 되살려내는 일에 매달렸다. 우리나라 매듭을 정립한 스승 김희진 매듭장에 이어 전통매듭 복원과 보급에 힘을 쏟았다. 요즘 시중에서 흔히 보는 매듭은 우리나라만의 매듭이 아닌, 중국과 일본 매듭이 뒤섞인 것이다. 중국에서 들어온 상품들과 시장상인들이 어깨너머로, 혹은 외국 책을 보고 만든 변형된 매듭이 쓰이고 있다. 송리는 아름다운 우리 매듭이 올바르게 알려지고 쓰이길 바라는 마음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시간을 쪼개어 강의를 하러 다닌다.

매듭을 만들고 매듭 전통을 이어 나가는 것은 쉽지 않지만 옛 사람들의 미(美)와 멋을 떠올리며 하나씩 완성해갈 때 느끼는 기쁨과 보람은 이 길을 계속 가는 이유이다. “단풍과 같이 아름다운, 봄의 새싹과 같이 고운 색감 실을 엮어 화사한 조화 속에 하나하나에 발랄한 생명력을 주는 작품”을 만들고 싶다는 바람은 그의 작품마다 드러나 있다. 훗날, 선조들이 남긴 문화재와 성북동의 자연이 어울린 북단장에 전통을 잇는 예술과 삶이 담긴 공간이 생기길 기대해본다.



〈태극선 유소(流蘇)〉, 부채길이 41cm, 매듭길이 49.5cm



〈진주낭〉, 16.5×13cm, 매듭길이 22.5cm

연보

1942년 서울 출생

이화여자대학교 미술대학, 서울여자대학교 미술대학원 공예학과 졸업

경력

한국매듭연구회 부회장, (사)서울무형문화재 기능보존회 이사장, (사)녹미미술문화협회
이사장, 서울산업대 전임교수 등

수상

국전 공예분야 입선, 전승공예전 특별상 · 국무총리상 · 장려상, 신사임당상(2006) 등

개인전

가나화랑(1995), 일본 다도미술관(1997), 로마동양예술박물관 등 7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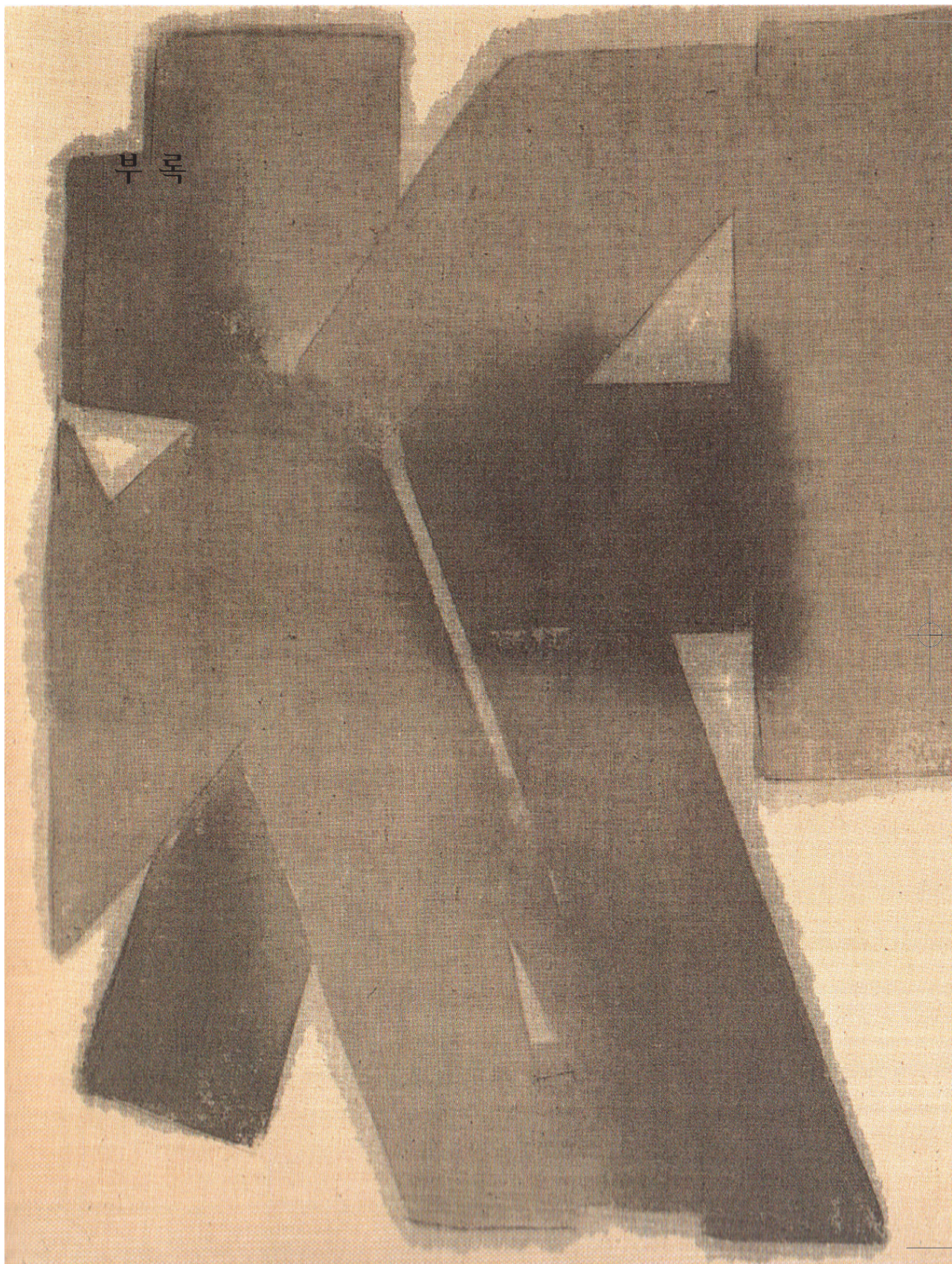
작품소장

국립민속박물관(한국), 로마국립동양예술박물관(이태리), 빅토리아 앤드 앨버트미술관
(영국), 씨애틀동양예술박물관(미국), 교토다도미술관(일본) 등

각주

1) 다회(多繪): 실로 땅아 만든 띠

부 록





신영상, 〈울 9917〉



- 현재 살고있는 예술인
- ▲ 성북동에 살았던 예술인(생존)
- 성북동에 살았던 예술인(작고)
- 문화유산 · 문화기관
- 없어진 문화유산
- 학교

2. 본문 수록 인물 정보 *성북동에 거주했던 예술가

이름*	생몰년도	호
고은(高銀)	1933~	
고희동(高羲東)	1886~1965	춘곡(春谷)
권옥연(權玉淵)	1923~	무의자(無衣子)
권진규(權鎭圭)	1922~1973	
김관호(金觀鎬)	1890~1959	동우(東愚)
김광균(金光均)	1914~1993	우두(雨杜)
김광섭(金珖燮)	1906~1977	이산(怡山)
김구(金九)	1876~1949	백범(白凡)
김기창(金基昶)	1913~2001	운보(雲甫)

설 명

시인. 전북 군산 출생. 본명 고은태(高銀泰), 1958년 조지훈의 추천으로 『현대문학』에 「폐결핵」을 발표하며 등단하였다. 시집 『새벽길』, 『만인보』, 소설 『화엄경』, 『정선아리랑』 등이 있다.

서양화가. 서울 출생. 안중식(安中植)·조석진(趙錫晉)에게 그림을 배우기 시작한 후, 1908년 한국 최초의 미술유학생으로 일본 도쿄미술학교에서 서양화를 공부하였다. 최초의 한국인 서양화가들의 모임인 서화협회(書畵協會)를 결성하였다.

서양화가. 함남 함흥 출생. 일본 도쿄미술학교와 프랑스 파리에서 유학 하였다. 개성적인 추상 양식을 구축하였다. 작품으로 〈벽(壁)〉, 〈메아리〉, 〈우화 B〉 등이 있다.

조각가. 함남 함흥 출생. 일본 무사시노미술학교 조각과에서 부르델의 제자인 시미즈 다카시에게 조각을 배웠다. 테라코타, 건칠 작품으로 우리나라 근대 조각계에 큰 자취를 남겼다. 주요 작품으로 〈지원의 얼굴〉, 〈마두〉 등이 있다.

서양화가. 평남 평양 출생. 1915년 도쿄미술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였다. 일본 문부성(文部省) 주최 제10회 전람회 ‘문전(文展)’에 작품 〈해질녘〉이 특선하였다. 귀국 후 평양에서 후진을 양성하였다.

시인. 개성 출생. 1930년대 모더니즘 시론을 실천하고, 시각적인 시를 잇달아 발표하여 ‘청각조차 시각화하는 재주’라는 평가를 받았다. 시집으로 『와사등』, 『기향지』 등이 있다.

시인. 함북 경성 출생. 광복 전후 문화계·관계·언론계 등에서 활동하였다. 주요 작품으로 『동경』, 『해바라기』, 『성북동 비둘기』 등이 있다.

정치가·독립운동가. 황해도 해주 출생. 본명 창수(昌洙). 신민회, 한인애국단 등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였다. 1919년 상하이로 망명, 1944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주석에 선임되었다.

화가. 서울 출생. 7살 때 장티푸스로 청각을 잃었으나, 17세인 1930년 이당 김은호의 문하에 들어가 한국화를 배우기 시작하였다. 신앙화, 구상화, 추상화, ‘바보산수’ 작품을 잇달아 발표하였다.

김소월(金素月)	1902~1934	
김용준(金瑬俊)	1904~1967	근원(近園)
김용진(金容鎭)	1878~1968	영운(穎雲)
김원룡(金元龍)	1922~1993	삼불(三佛)
김인승(金仁承)	1910~2001	
김정숙(金貞淑)	1917~1991	
김종삼(金宗三)	1921~1984	
김태(金泰)	1931~	
김태석(金台錫)	1875~1953	성재(性齋)
김향안(金鄉岸)	1916~2004	
김환기(金煥基)	1913~1974	수화(樹話)

시인. 평북 구성 출생. 본명 정식(廷湜). 안서(岸曙)·김억(金億)의 지도와 영향 아래 시를 쓰기 시작하였다. 1920년에 『창조(創造)』지에 발표하여 문단에 데뷔하였다. 주요 작품으로 「진달래꽃」, 「엄마야 누나야」, 「산유화」등이 있다.

화가·수필가. 경북 대구 출생. 1931년 일본 도쿄미술학교 서양화과를 졸업하였으나 1939년부터는 전통적인 동양화로 전향하였다. 『근원수필』로 ‘한국 수필문학의 백미’라는 평가를 받았다. 1950년 6·25전쟁이 일어나자 월북하여 북한 화단을 이끌었다.

서화가(書畫家). 서울 출생. 한말에 수원군수 및 내부(內部)의 지방국장 등을 지냈다. 관직에서 물러난 이후 주로 서화에만 전념하였다. 광복 이후 대한민국미술전람회에 참여, 서예부 심사위원과 고문을 역임하였다.

고고학자·미술사학자. 평북 태천 출생. 해방 이후 한국고고학을 이끌며, 한국미술사 연구에 많은 업적을 남겼다. 1961년 서울대학에 고고인류학자가 창설된 이래, 서울대학에 재직하며 후진양성과 연구에 힘썼다. 수필가이자 문인화가로서도 활동하였다.

서양화가. 개성 출생. 1937년에 조선미술전람회에서 〈나부〉로 최고상인 창덕공상을 받았다. 초기에는 인물화를 1974년 미국으로 이주한 뒤에는 장미와 모란을 많이 그렸다.

조각가. 서울 출생. 1955년 한미재단 장학금으로 미국에 건너가 현대적 철조각을 연구하였다. 1956년부터 시도한 철조(鐵彫) 추상조각은 대리석·나무·청동 재료의 추상·반추상 작업으로 이어졌다.

시인. 황해도 은율 출생. 6·25전쟁 때 대구에서 〈원정(園丁)〉, 〈돌각담〉 등의 시를 발표하여 등단하였다. 시집으로 『십이음계(十二音階)』, 『북치는 소년』,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 등이 있다.

서양화가. 함남 출생. 1955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하였다. 여러 차례 국전에 입선하였고, 10여회의 개인전을 열었다.

서예가. 중국·일본 등지에 왕래한 서예가로 중국에서는 위안스카이(袁世凱)의 옥새를 새겼고, 그의 서예고문을 지냈다. 광복 후 서예가 단체인 대동한묵회(大東翰墨會)를 조직하였다.

수필가·미술평론가. 서울 출생. 본명 변동림(卞東琳). 1930년대 중반부터 문학활동을 하기 시작하였다. 수필집 『파리』, 『카페와 참종이』와 김환기의 전기 『사람은 가고 예술은 남다』가 있다.

서양화가. 전남 신안 출생. 한국 추상미술의 1세대이다. 해방 후에는 산, 강, 달 등 자연을 소재

김희진(金喜鎭)	1934~	
남관(南寬)	1911~1990	
노수현(盧壽鉉)	1899~1978	심산(心汕)
민영환(閔泳煥)	1861~1905	계정(桂庭)
박두진(朴斗鎭)	1916~1998	혜산(兮山)
박래현(朴峽賢)	1920~1976	우향(雨鄉)
박용구(朴容九)	1914~	
박태원(朴泰遠)	1910~1986	구보(仇甫)
박화목(朴和穆)	1924~2005	은종(銀鐘)
방인근(方仁根)	1899~1975	춘해(春海)

로 한국적 정서를 표현한 작품을 선보이며, 신사실파(新寫實派)를 조직, 모더니즘 운동을 전개하였다.

매듭장. 중요무형문화재 22호. 한국 초대 무형문화재 매듭장 정연수 선생을 사사한 후 전국 방방곡곡의 장인을 찾아다니며 38가지 한국 고유의 매듭 문양을 복원하였다. 1973년 김희진 전 승공예연구소를 개설하여 전수교육을 시작하였다.

서양화가. 경북 청송 출생. 1958년 한국인 화가로는 처음으로 살롱 드 메 전(展)에 초대되었다. 1968년 귀국한 후 파리를 중심으로 한 작품활동을 계속하였다. 주요 작품으로 〈고향의 노인들〉, 〈대화〉, 〈푸른 반영〉 등이 있다.

동양화가. 개성 출생. 우리나라 근대 동양화 6대가 중 한 명으로 심전 안중식의 수제자로 한국 전통산수화를 계승하고 발전시켰다. 안중식·조석진의 지도 아래 전통화법을 수학하였다.

한말의 문신·순국지사. 예조판서, 병조판서, 형조판서를 지냈다.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일본의 내정간섭을 비판하였으나 이미 대세가 기울어짐을 보고 자결하였다.

시인. 경기도 안성 출생. 1946년부터 박목월·조지훈과 함께 청록파로 활동하였다. 자연친화를 주제로한 시와 기독교 색채의 시를 발표하였고, 시집으로 〈청록집〉(공저), 〈해〉, 〈하얀 날개〉 등이 있다.

동양화가. 평남 진남포 출생. 동양화의 전통적 관념을 타파하고 새로운 시도를 전개하였다. 1969년 뉴욕에 판화연구소를 두어 동양화의 실험적 의욕을 판화란 매체로 실현시켰다. 주요 작품으로 〈이른아침〉, 〈화장(化粧)〉 등이 있다.

음악평론가·작가. 경북 영주 출생. 우리나라 최초의 음악평론집 『음악과 현실』을 발표했다. 극작품집 『흙비』, 『삼별초』, 뮤지컬 〈살짜기 읊서예〉가 있으며, 1988년 서울올림픽 개·폐막식 시나리오 등 다방면에서 활동하였다.

소설가. 서울 출생. 이태준, 유치진 등과 구인회(九人會)를 조직했다. 경성의 모습과 당시 세태를 담은 『소설가 구보씨의 1일』, 『천변풍경(川邊風景)』 등을 발표하였다. 한국전쟁 때 월북하였다.

아동문학가·시인. 황해도 황주 출생. 1948년부터 동화와 소년소설을 발표하였고, 가곡 〈보리밭〉, 동요 〈과수원길〉의 작사를 하였다. 시집으로 『초롱불』, 『꽃 이파리가 된 나비』 등이 있다.

소설가. 충남 예산 출생. 1924년 사재(私財)로 종합문예월간지 『조선문단』을 간행하였다. 장편소설 『마도(魔都)의 향불』, 『화심(花心)』 등이 있다.

법정(法頂)	1932~2010	
서장환(徐章煥)	1890~1970	
서진달(徐鎭達)	1908~1947	도풍(稻風)
석주선(石宙善)	1911~1996	난사(蘭斯)
성수침(成守琛)	1493~1564	청송(聽松)
손재형(孫在馨)	1902~1981	소전(小田/小筌)
신동우(申東雨)	1936~1994	
염상섭(廉相涉)	1897~1963	횡보(橫步)
오세창(吳世昌)	1864~1953	위창(葦滄)
우우임(于右任)	1879~1965	
유창환(兪昌煥)	1870~1935	우당(愚堂)
윤이상(尹伊桑)	1917~1995	

승려. 전남 해남 출생. 속명(俗名) 박재철. 1956년 통영 미래사(彌來寺)에서 효봉(曉峰)을 은사로 출가하였다. 강원도 산골에서 직접 땀감을 구하고, 밭을 일구며 무소유의 삶을 살았다. 수필집으로 『무소유』, 『오두막 편지』 등이 있다.

독립운동가. 상의회(商議會)를 조직해 독립운동을 펼쳤다. 1920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독립공채 모집위원회에 임명되었다. 1923년 계룡산에서 동흥의숙(東興義塾)을 설립하였다.

서양화가. 경북 대구 출생. 동경미술학교 졸업, 대구 계성중학교 교사를 하며 변종하, 김창락, 추연근 등을 지도하였다. 세잔에 심취하여 인물화, 풍경, 정물에서도 세잔의 조형요소를 도입하였다.

복식연구가. 평양 출생. 한국복식사의 기틀을 세운 복식연구가이다. 복식 관련 자료 8천여 점을 수집하고, 그 일부를 단국대에 기증하여 1981년 석주선기념박물관이 건립되었다.

학자. 기묘사화(己卯士禍) 때 스승 조광조가 처형되자 은거하여 학문에 힘쓰며 제자를 키웠다. 문집으로 《청송집(聽松集)》이 있다.

서예가. 전남 진도 출생. 박정희 대통령의 서예스승이었으며, 중국적인 색채에서 벗어나 독창적으로 소전체를 창안해 내었다. 8.15광복 이후 서도(書道)라는 용어대신 서예라고 사용할 것을 주장하였다.

만화가. 함북 회령 출생. 1953년 『땃돌이의 모험』을 시작으로, 『풍운아 홍길동』(1,300 여회)으로 최장수 신문연재를 기록하였다. 『한국의 역사』로 1980년에 한국만화가상 본상을 수상하였다.

소설가. 서울 출생. 1921년 한국 최초의 자연주의적인 단편소설 『표본실의 청개구리』을 발표하였다. 주요 작품으로는 『만세전』, 『삼대』 등이 있다.

독립운동가 · 서예가 · 언론인. 천교도일간지 『만세보』의 계몽운동을 통해 국채보상운동을 전개하였고, 3 · 1 운동 ‘민족대표 33인’ 중 한 명이다. 전각과 서예에도 뛰어났다. 저서로 『근역서휘』, 『근역화휘』, 『근역서화징』 등이 있다.

서예가. 중국 국민당의 중앙집행위원이자, 중국 근대 서예가이다. 중국 역대 초서를 계통적으로 연구하고 모아 자신만의 서체로 정립하여 만든 『초서천자문』이 있다.

서예가. 초서에 능하였으며, 조선미술전람회에 여러 번 입선하였다. 고향 부여에서 부흥학교를 창설하였다.

작곡가. 경남 통영 출생. 전통 음악에 서양의 악기와 기법을 더한 곡으로 주목받았다. 1971년

이경성(李慶成)	1919~2009	석남(石南)
이광수(李光洙)	1892~1950	춘원(春園)
이구열(李龜烈)	1932~	청여(靑餘)
이규선(李奎鮮)	1938~	남계(南溪)
이대원(李大源)	1921~2005	
이마동(李馬銅)	1906~1981	청구(靑駒)
이어령(李御寧)	1934~	
이원수(李元壽)	1911~1981	동원(冬原)
이태준(李泰俊)	1904~?	상허(尙虛)
임창무(林昌茂)	1893~1944	

독일에 귀화하였다. 오페라, 교향곡, 실내악곡 등 많은 작품을 남겼다. 오페라 〈심청〉, 교향시 〈광주여 영원히〉, 관현악곡 〈신라〉 등이 있다.

미술평론가. 인천 출생. 전문 미술인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국립현대미술관장을 역임하였다. 재임시 국내 최초로 학예연구사 제도를 도입하고, 작품 소장 계획을 확립하는 등 한국 미술관 발전의 초석을 마련하였다.

소설가. 평북 정주 출생. 한국 최초의 장편소설 『무정』을 매일신보에 연재하였다. 소설 『흙』, 『단종애사』 등이 있다. 한국전쟁 때 납북되었다.

미술평론가. 황해 연백 출생. 민국일보 · 경향신문 · 서울신문 · 대한일보 기자와 문화부장을 거쳐 한국미술평론가협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저서에 『근대한국화의 흐름』, 『한국문화재 수난사』 등이 있다.

동양화가. 인천 출생. 서울대 회화와 졸업하고 이화여대 교수를 지냈다. 프랑스 파리, 이탈리아, 뉴욕 등 국내외에서 개인전을 개최하였다.

서양화가. 경기도 파주 출생. 동양적인 필법과 한국적 정서를 담은 독창적인 화풍을 선보였다. 홍익대 초대 미술대학장과 총장, 대한민국 예술원 회장 등을 역임하였다.

서양화가. 동경미술대학 서양화와 본과 졸업, 초기 화풍은 아카데미한 사실주의였으나 후기에는 인상파적 점묘법을 보였다.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장, 대한민국미술전람회 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하였다.

신문인 · 문학평론가. 충남 아산 출생. 이화여대 교수, 『문학사상』 주간, 문화부 장관 등을 지냈다. 주요 작품으로 수필집 『흙 속에 저 바람 속에』, 평론집 『저항의 문학』, 『이어령전작집』(12권) 등이 있다.

아동문학가. 경남 양산 출생. 대표작 〈고향의 봄〉은 흥난파가 곡을 붙였다. 문학집 『종달새』, 장편동화 『숲 속의 나라』 등이 있다. 한국문인협회 이사, 한국아동문학가협회 초대회장 등을 역임했다.

소설가. 강원도 철원 출생. 〈오몽녀(五夢女)〉로 등단하여 구인회(九人會) 활동을 하였다. 작품으로 『가마귀』, 『달밤』, 『복덕방』 등이 있다. 한국전쟁 때 월북하였다.

독립운동가. 충북 증평(曾坪) 출생. 만경보통학교에 교사로 재직 중 문용기와 함께 1919년 4월 4일 김제군 만경면(萬頃面) 장날에 일어난 독립만세운동을 계획 · 주도하였다.

장면(張勉)	1899~1966	운석(雲石)
장승업(張承業)	1843~1897	오원(吾園)
장우성(張遇聖)	1912~2005	월전(月田)
전광웅(全光鏞)	1919~1988	백사(白史)
전형필(全瑩弼)	1906~1962	간송(澗松)
정양모(鄭良謨)	1934~	소불(笑佛)
정인보(鄭寅普)	1893~1950	위당(爲堂)
정지용(鄭芝溶)	1902~1950	
정탁영(鄭晔永)	1937~	백계(白溪)
제백석(齊白石)	1860~1957	백석(白石)
조지훈(趙芝薰)	1920~1968	
진홍섭(秦弘燮)	1918~2010	수묵(樹默)
채동선(蔡東鮮)	1901~1953	

정치가. 서울 출생. 초대 주미대사, 제2공화국 국무총리 등을 역임하였다.

화가. 근대 회화의 토대를 마련한 인물이다. 산수와 인물에 뛰어났고, 안견(安堅)·김홍도(金弘道)와 함께 조선시대의 3대 거장으로 일컬어진다.

동양화가. 경기도 여주 출생. 조선미술전람회 입선으로 등단하여 폭넓은 활동을 보였다. 서울 대, 홍익대 교수를 지냈다. 어용전시회에 작품을 내는 등 친일행적이 있다.

소설가·국문학자. 함남 북청 출생. 출세주의자를 풍자한 단편 『꺼삐딴리』로 동인문학상을 받다. 작품으로 『창과 벽』, 『편지의 미학』 등이 있다.

문화재수집가. 서울 출생. 일제강점기 우리 문화재를 수집하여 외국에 넘어가는 것을 막았다. 성북동 북단장에 보화각(葆華閣)을 세워 우리나라 최초의 사립박물관을 설립하여 수집한 문화재를 보존하였다.

미술사학자. 전 국립중앙박물관 관장. 저서로 『이조 도자』, 『분청사기』, 『한국의 불교 회화』, 『한국 백자 도요지』 등이 있다.

한학자·역사학자. 양명학 연구의 대가이다. 박은식, 신채호 등과 함께 중국에서 국권회복운동을 하였으며, 국학대학 초대학장, 초대 검찰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저서 『조선사연구』, 『양명학연론』 등이 있다.

시인. 충북 옥천 출생. 섬세하고 개성있는 표현으로 모국어를 현대화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작품으로 「향수」, 「압천」, 「바다」 등이 있다.

동양화가. 강원도 횡성 출생. 1960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졸업. 목림회에 참여하여 수묵 추상화를 선보였다. 작품으로 〈잊혀진 것들〉과 〈영겁속에서〉 시리즈 등이 있다.

중국의 화가. 본명 황(璜). 40대에 화초·영모·초충류로 알려지게 되었다. 그의 그림은 양저우계(揚州系) 화풍이 되었다. 주요 작품으로 『화훼화책(花卉畵冊)』, 『화훼화책(花卉畵冊)』 등이 있다.

시인·국문학자. 경북 영양 출생. 본명 동탁(東卓). 청록파로 활동하였다. 주요 작품으로 『승무』, 『한국문화사서설』 등이 있다.

미술사학자. 황해도 개성 출생. 해방 이후 한국미술사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개성분관장·경주분관장·이화여대박물관장 등을 지냈다. 저서로 『한국미술사』, 『불상』 등이 있다.

작곡가. 전남 보성 출생. 1930년 우리나라 최초의 현악사중주단을 결성하였고 1945년에 고려

최순우(崔淳雨)	1916~1984	혜곡(兮谷)
한묵(韓默)	1914~	
한용운(韓龍雲)	1879~1944	만해(萬海)
허영자(許英子)	1938~	
현제명(玄濟明)	1902~1960	현석(玄石)
황수영(黃壽永)	1918~	초우(蕉雨)

음악협회를 조직하였다. 민요를 채보하고 합창곡으로 편곡하였다. 작품으로 가곡 〈고향〉, 〈모란이 피기까지는〉 등이 있다.

미술사학자. 개성 출생. 본명 희순(熙淳). 한국미술을 외국에 알리고, 우리나라 박물관의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 제4대 국립중앙박물관장을 지냈다. 저서로 『최순우전집』(5권), 『무량수전 배흘림기둥에 기대서서』 등이 있다.

화가. 일본 천단(川端)미술학교에서 수학하고, 1955~61년 홍익대 미술대학 교수를 지냈다. 1961년 프랑스로 건너가 파리에서 활동하고 있다. 한국 추상회화의 선구자로 모던아트협회 창립회원이다.

시인·독립운동가·승려. 충남 홍성 출생. 속명은 유천(裕天)이다. 출가 후 불교의 현실참여를 주장하고, 3.1운동 때 민족대표 33인의 한 명으로 참여하였다. 『조선불교유신론』, 시집 『님의 침묵』 등을 남겼다.

시인. 우리나라 최초인 여성시인들의 순수시 동인 ‘청미회(靑眉會)’를 조직하였다. 시집 『가슴엔 듯 눈에 듯』, 『빈 들판을 걸어가면』, 『허영자 전시집』 등이 있다.

음악가·교육자. 대구 출생. 미국에서 유학하였고, 친일활동을 하였으나 음악계 전반에서 활동하며 많은 작품을 남겼다. 오페라 《대춘향전》, 《왕자호동》, 가곡 《고향생각》, 《희망의 나라로》 등이 있다.

미술사학자. 개성 출생. 불교미술연구의 선구자로 동국대학교 교수. 제3대 국립중앙박물관 관장을 역임하였다. 저서로 『한국의 불교미술』, 『불교와 미술』, 『한국의 불상』 등이 있다.

3. 성북동 문화유산과 문화기관

명칭	지정번호	주소
간송미술관		성북동 97-1
길상사		성북동 323
변종하미술관		성북동 330-484
삼청각		성북동 330-115
서울성곽	사적 제10호	
선잠단지	사적 제83호	성북동 64-1
성락원	사적 제378호	성북동 2-22
심우장	서울시기념물 제7호	성북동 222-1
이종석별장	서울특별시 민속자료 제10호	성북동 243-4
이태준가	서울시 민속자료 제11호	성북동 248
최순우옛집	등록문화재 제268호, 시민문화유산 제1호	성북동 126-20
한국가구박물관		성북동 330-577
성북구립미술관		성북동 246
스페이스캔		성북동 46-26
테이크아웃드로잉		성북동 97-31
이안재갤러리		성북동 52
한국서예관		성북동 321-13

전화번호	내용	비고
02-762-0442	우리나라 최초로 세워진 사립박물관	5,10월중 일반개방
02-3672-5945	조계종 사찰	
02-764-2590	화가 변증하의 집	
02-765-3700	전통문화공연장	
	조선시대 서울을 둘러쌌던 도성(都城)	비공개
	조선시대 잠농(蠶農)의 번영 기원	
	조선시대 의친왕 별궁	
02-920-3412	승려이자 시인인 한용운의 집	
	조선후기 큰 부자였던 이종석의 별장	비공개
02-764-1736	소설가 이태준의 집, 수연산방(壽硯山房)	
02-3675-3401	제4대 국립중앙박물관장 최순우의 집	
02-745-0181	전통 목가구 전문박물관	
02-6925-5011	구립 최초의 미술관	
02-766-7660	사립미술관	
02-745-9731	미술전시관 겸 카페	
02-743-3770	디자인스튜디오와 갤러리	
02-741-8881	서예 전문 갤러리	

조 사 개 요

기 간 : 2010년 4월 12일부터 10월 31일

발 주 : 성북구청 문화체육과

주 관 : (재)내셔널트러스트 문화유산기금(이사장 김인회)

감 수 : 김인회(해곡최순우기념관 관장, 전 연세대학교 교수)

조 사 : 송지영(학예사), 심지혜(연구원), 양유진(연구원)

원 고 : 송지영(학예사), 심지혜(연구원)

사 진 : 김은진, 성유숙

도움주신 분들(가나다순) :

김배영, 김은영, 김향규, 변덕, 변진, 사공정숙, 서세옥, 송영방, 신영상, 유영옥, 유영춘, 유진쾌,
유형재, 윤대경, 윤중식, 이혜자, 임송희, 전성우, 조영아, 하두호, 현금동, 황옥숙

※ 아틀리에 공개와 인터뷰, 자료 협조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사용한 도판은 작가와 유족들께 제공받았으며, 인용한 자료는 출처를 표기하였습니다.

자연과 문화유산의 100년 미래

(재)내셔널트러스트 문화유산기금

내셔널트러스트 운동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모금·기부·증여를 통해 보존가치가 있는 자연과 문화유산을 확보하여 시민주도로 영구히 보전·관리하는 시민운동입니다.

(재)내셔널트러스트 문화유산기금은 내셔널트러스트 운동의 일환으로 '최순우 옛집(시민문화유산 1호)'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 재단법인입니다. 문화유산을 보전하며 문화유산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이해를 높이고, 관련 문화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문화유산 : 최순우 옛집, 도래마을 옛집, 권진규 아틀리에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126-20 '최순우 옛집' | 02-3675-3401~2

<http://www.nt-heritage.org> | <http://cafe.naver.com/ntchfund>

후원계좌: 신한은행 100-020-297069 (예금주: 내셔널트러스트문화)



최순우옛집 전경

성북동

잊혀져가는 우리동네 옛이야기를 찾아서 2

발 행 : 성북구청 문화체육과

주 관 : (재)내셔널트러스트 문화유산기금

기획·진행 : 송지영

원 고 : 송지영, 심지혜

제 작 : 연두와파랑 02 3446 4738

디 자 인 : 마가림

발 행 일 : 2010. 12. 20